

11-15-2008

교회의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강릉 시내 4개 교회를 중심으로

Eok Man Han 한억만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한억만, "교회의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강릉 시내 4개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CHURCH'S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WITH SPECIAL REFERENCE TO FOUR CHURCHES IN GANGNEUNG CITY

written by

EOK MAN HA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November 15, 2008

**A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CHURCH'S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WITH SPECIAL REFERENCE TO FOUR
CHURCHES IN GANGNEUNG CI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OK MAN HAN

NOVEMBER 2008

교회의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강릉시내 4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한 익 만

2008년 11월

Abstract

A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Church's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with Special Reference to Four Churches in Gangneung City

Eok Man Han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study the church's welfare for the aged as one of means to serve local community and to find out most effective programs of it.

Following as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presents theoretical ground on the aged. The various properties and problems which are found in old people and some theories for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are dealt in this chapter. Chapter 3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the welfare for the aged.

Chapter 4 and 5 survey the actual conditions of Gangneung city's welfare policies and the activities of four churches located in Gangneung such as Gangneung Noam Church, Central Methodist Church, Gangneung Presbyterian Church and Sornang Church. And based on the survey the activities of the four churches are analyzed.

Chapter 6 explores prospective developmental strategies of church's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fter dealing with the purpose and planning process of church's welfare, this chapter suggests practical programs for more effective outcome.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summarized and concluded in Chapter 7.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현 사

이 논문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지원해주신 포남교회 교우님과 사랑하는 아내
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글

하나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 논문도 막힐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권문상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정성어린 지도에 격려해 주신 김세윤 교수님과 김영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학위를 마칠 때까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태석목사님과 본부 스텝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강릉포남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료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관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자체가 공부라 하지만, 신학과 함께 늦게 시작한 사회복지학은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또 인생 후반부 사역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저에겐 기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역들의 장단점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서 제 자신이 미래 노인복지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 여정에서 언제나 함께 동거 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언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기쁨이와 인애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008년 11월 한억만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2
제 3 절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노인에 대한 이론적 기초	6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론	6
1. 노인의 개념	6
2. 노인의 변화와 특성	9
3. 노인의 여가생활 실태	11
제 2 절 노인의 문제점	12
1. 경제적인 문제	13
2. 의료보호 문제	14
3. 심리적인 문제	14
4. 사회적인 문제	15
제 3 절 노인 복지에 대한 이론	16
1. 노인 복지 배경	16
2. 노인 복지 가치관	18
3. 노인복지정책 현황	20
4. 노인 복지 과제	22
제 3 장 노인복지와 교회의 상관관계	25
제 1 절 성경과 노인	25
1. 성경에서의 노인의 위치	25
2. 성경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기능	27

3 성경에서의 노인복지	28
제 2 절 지역사회와 노인	30
1 지역사회 개념과 기능	31
2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33
3 지역교회와 노인복지	41
제 3 절 노인복지와 교회 관계성	44
1 교회와 노인복지 당위성	44
2 교회와 노인복지 역할	47
3 교회와 노인복지 현황	49
제 4 장 강릉시 4개 교회의 노인복지 활동	53
제 1 절 강릉시 소개 및 노인 복지 현황	53
1 강릉시 개황과 노인인구	53
2 강릉시 노인복지 실태	57
3 강릉시 노인복지 시설	66
4 강릉시 노인복지 문제점과 발전 방안	66
제 2 절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69
1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연혁	69
2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사역	70
3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평가	74
제 3 절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76
1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연혁	77
2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사역	77
3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평가	80
제 4 절 강릉장로교회 노인복지	81
1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 연혁	81
2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 학사	82
3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 평가	87

제 5 절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88
1.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연혁	88
2. 강릉소망교회 노인대학 학사	89
3. 강릉소망교회 시니어클럽	91
4.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평가	93
제 5 장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활동 분석	96
제 1 절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긍정적 영향	96
1. 인적 자원 적소 배치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96
2. 노동창출로 인한 경제적 도움	98
3. 노인공경에 대한 인식변화	99
4.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도 변화	100
제 2 절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문제점과 한계	101
1. 교회 본질적 사명과 복지 개념	102
2.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 결여	103
3.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 결여	105
4. 노인복지 프로그램 한계성	106
제 3 절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과제	107
1. 교회를 벗어난 인적자원의 활용방안	108
2. 시설 및 조직의 활성화 방안	110
3. 재정자원의 활용방안	111
4.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방안	113
제 6 장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사역의 발전적 전략	116
제 1 절 교회의 노인복지 의식의 변화	116
1. 노인복지 목회의 목회학적 원리	116
2. 성서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118
3. 교회적 상황을 통한 의식변화	119

4 현장견학을 통한 의식변화	121
제 2 절 구체적인 수립 과정	122
1 노인복지에 대한 기획	123
2 장소 활용과 연합 활동	124
3 동기부여 및 위원회 구성	125
4 프로그램 시행	127
제 3 절 교회 노인복지 실천적 제안	129
1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129
2 공동체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130
3 생활불편 해소 프로그램	131
4 시설 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	133
제 7 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9
Vita	142

표 목 차

<표 1> 강릉시 노인인구의 성별구성과 변화	55
<표 2>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성별·연령별급 구성	56
<표 3>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현황	57
<표 4> 노인 무료급식소	60
<표 5>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현황	61
<표 6> 노인복지기금	63
<표 7> 노인복지시설 위문	64
<표 8>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66
<표 9>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제시된 노인복지시설과 강릉의 실태	67
<표 10> 평안의 집 건물 현황	78
<표 11> 주간 프로그램 계획표	79
<표 12> 월간·연간·명절프로그램	79
<표 13> 1학기 교육계획서	83
<표 14> 2학기 교육계획서	84
<표 15> 노인대학 담당자	86
<표 16> 소망노인대학 수업계획서	90
<표 17> 소망노인대학 시간표	91
<표 18> 1학기 교과목	92
<표 19>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114
<표 20> 2004년 지출 예산	127
<표 21> 사회봉사대 조직표	13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1980년까지는 3퍼센트 정도의 다소 완만한 추세였지만, 1991년 4.8퍼센트, 2000년 7퍼센트, 대로 증가하고 2006년에 9.5퍼센트였던 전국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10.9퍼센트로, 2020년에는 15.7퍼센트, 2030년에는 24.1퍼센트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24년, 미국은 71년 그리고 프랑스는 115년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19년 만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회는 고령화시대가 오고 있건만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가정, 사회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가족 구조 변화, 가치관 변화 등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므로 전통적인 가족부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노인들은 더욱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나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요구는 다양하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곧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문제부터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아직도 뚜렷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1) 통계청, 2003 고령자 통계, 11. 김종일 외, 사회문제론 (서울: 청록출판사, 2004), 413에서 재인용

여기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은 다양화되는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가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찾자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었다. 모든 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국가가 감당키 어려웠던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었던 것은 교회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있고, 또한 지역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지역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노인복지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영혼구원에 있지만, 지역사회를 섬기는 노인복지는 오히려 이 시대의 새로운 전도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교회의 비전과 목회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령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릉시내에 있는 4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왔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과제에 대한 것이 이 논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활성화는 먼저 교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제안으로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강릉시는 노인 인구는 22,911명으로 전국 평균 9.1퍼센트보다 높은 9.6퍼센트에 달한다. 한편 독거노인은 2,450명인데, 670명이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다. 현재 강릉시내에 노인정은 18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릉시가 시범 노인정을 5개 운영하고 있다.²⁾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들의 소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경기 여파는 노인들에겐 삶의 질 저하라는 더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강릉시기획예산과, 강릉통계연보 (2005), 90-98.

하지만 이러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시 위한 복지시설은 비싼 유료시설 외에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물론 강릉시에서도 노인 복지적 측면에서의 행정적 지원이나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생계보장 차원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잡다한 보고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릉시 교회³⁾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전파, 사랑의 친교, 이웃에 대한 책임 봉사 등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해야 할 의무가 곧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과제들을 앞장 서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말씀선포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봉사의 기능을 항상 가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며 통전적인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 여러 활동 중 노인복지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의와 나라를 확립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참여하는 일임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일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 내적 근거를 하나님과 교회의 본질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복지 기본이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 그리고 연대적 책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그 가치에 의해서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의 신학적 근거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두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그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의 실천적 기초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에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준 섬김과 봉사이며,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의 뒤를 따라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의 최종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종말적 구원의 성취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미리 선회하는 것이다.

3) 강릉시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기독교 15,442명, 불교 18,220명, 천주교 5,706명, 기타 9,200명

본 연구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이 바로 본 논문을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강릉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노인복지를 감당하고 있는 4개 교회(강릉소망교회, 노암교회, 중앙교회, 강릉장로교회)를 통해 노인복지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선교적 책임과 이웃사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올바른 종교관, 인생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 주어서 젊었을 때 기술과 은사를 사회봉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문제인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의 방안을 교회에 접목시키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노인복지와 선교차원에서 접목시킬 것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인문제와 관련된 논문, 단행본과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또 실제적인 검증자료를 위해서는 강릉시에 위치한 노인복지를 오랫동안 해왔던 강릉시 4개 교회인 노암교회, 소망교회, 중앙감리교회, 강릉교회 등에 자료와 방문 면담을 통해 교회의 지역사회 노인복지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노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노인 복지에 대한 이론으로 연결하여 왜 노인복지가 필요한가를 역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논하고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모습, 노인과 교회의 역학관계, 그리고 왜 교회가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지를 역설하며 교회에서의 노인복지 현황을 살펴보면서 과정과 실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후에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강릉시 노인복지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적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제안을 하려고 한다. 강릉시의 노인복지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강릉 시내 노인복지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4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내놓으려 한다. 곧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도록 목회학적인 관찰을 한 후에 설교와 교육 그리고 현장견학을 통해 의식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여 구체적인 타개책을 마련코자 한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사회와 교회가 더불어 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곧 교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문제와 욕구를 수용하고,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기관을 모델로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제 2 장

노인에 대한 이론적 기초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노인이라는 개념은 노령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⁴⁾ 곧 생리적 노화과정, 사회제도에서 자기역할 상실, 관계상실의 삶, 존엄성 상실, 불가피한 소외나 고독의 삶,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는 존재 등 복합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과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만 개입하는 방법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⁵⁾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양화되는 이러한 노인문제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론

노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노인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들의 변화와 특성,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여가생활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노인에 대해 바로 알 수가 있다.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대표적 개념은 역연령 60세 혹은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4) 김성철, “노인복지중심의 복지목회 전망과 과제”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 교육대학원, 2003), 45-47.

5) 이교갑, “고령화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 논문,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4), 27-29.

노인으로 규정하지만, 오늘날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제도와 법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⁶⁾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기계적인 시간의 측정에 의하여 연령이 몇 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는 방법, 소위 시간 연령의 방법과 함께 심신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노화현상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노령으로 간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소위 생활연령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⁷⁾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자각능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로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였다.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있어 퇴화현상이 있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

6) 노인복지법 제 8조.

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 2003), 34.

8) 한창영, “한국노인복지의 행정과 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11.

는 사람, 인체의 조직과 기능의 예비능력이 감퇴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를 요약하면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의이나 실제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인 정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과학 연구 상의 목적이나 정책 및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⁹⁾

첫째는 개인의 자각에 대한 정의다. 이것은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다. 둘째는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정의다.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것인데,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이다. 셋째는 연령에 의한 노인이다. 이 경우는 주로 비생산적인 정년 연령부터를 노인으로 개념화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 정의다.¹⁰⁾ 이것은 노인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 정도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정의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나, 노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나,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다. 이렇게 학자들은 노인을 정의하는데 늙음 자체와 역연령, 사회적 역할 또 늙음에 대한 자각의 관점 등을 준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

하지만 성경에서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흰 사람(삼상 12:2)을 가리킨다. 구약에는 수염이 희다는 뜻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불렀고(창 8:10; 삼하 19:32; 욥 12:20; 시 72:18) 흰머리란 뜻으로 사용할 때는 70대 노인을 말했다. 백발이나 은발의 사람은 정말 늙었다는 뜻이 있다(창 15:15; 왕상 14:4; 시 76:81; 삿 8:32; 호 7:9).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들 거린다'는 뜻을 가진 80대 노인을 가리킨다

9)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45-48.

10)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연구,"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11)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9), 65.

(욥 15:10; 29:8). 그러므로 구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노인을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고독과 소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시기(시 71:9)인 60-80대(시 90:10)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는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늙은이로 표시하거나(요 3:4) 단순히 늙은 나이를 나타내기도 했다(눅 1:36). 또한 단순히 ‘늙은이’ 또는 ‘연장자’의 뜻으로 나타내기도 했다(눅 1:8; 딤후 2:2). 이렇게 신약에서 노인은 고령으로 자녀 생산 능력이 없는 생리적 노령과 연령적으로 연장자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외적인 늙음 외에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곧 노인은 장수의 축복이며(창 15:15; 출 20:12), 지혜의 상징이며(욥 15:10; 신 32:17)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야시스(Yasis)라는 히브리어는 ‘나이든, 존경할 만한’이라는 의미가 포함 되어 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신 5:16; 레 19:3)라는 말씀은 노인의 사회적 보호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노인의 변화와 특성

노인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노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노화(老化)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진행과정을 노화라 하는데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로 세분하여 알아야 한다.¹²⁾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¹³⁾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세포조직, 기관, 개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서, 유기체에 내재하고 있는 필연적 과정으로 나타나며, 연령에 따른 생리적 기능의 저하, 자기 회복력의 저하, 질병에 대한 면역의 저하 등과 같은 유해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심리적 노화와 사회적 노화가 병행된다.

노인의 생물학적 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라 성장, 성숙, 노화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신체가 최고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발달하는 성장의 시기를 먼저 거치고, 신체적 기능을 정신적으로 상실해 가는 노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생리적 변화는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¹⁴⁾ 노인의

12)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43.

13) 김계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82), 7.

14)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9), 64.

생리적 특성은 외모와 수면양태의 변화나 신체 내 각 기관의 기능저하, 에너지운동, 신체적 협동성의 저하, 그리고 질병에 대한 면역성의 약화 등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육체는 기계와 같은 것이어서, 오랜 세월 사용하다보면 마멸되는 것처럼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그 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노년기의 생리적 특성은 전체적인 기능의 저하와 감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억력, 학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정신기능 능력이 노화에 따라 현저하게 낮아진다. 특히 성격의 특성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내향성과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증가, 우울증 경향, 과거에 대한 회상,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성역할에 관한 지각의 변화, 의존성 증가 등 전체적 완고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바뀐다. 또한 불평과 의심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고독하며 비판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게 된다.¹⁵⁾

그래서 노년기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경우 정신장애도 유발되는데 그 원인은 신체적 측면에 있는 기질적 장애와 함께 성격, 생활경험 등과 관련되는 정서적 측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후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곧 노년기엔 갖가지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체의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소외 및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노화는 인생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있어서는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역할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화는 어려움이 많고 불안의 상태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즉 노년기제로의 역할전이를 위한 통과의식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노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혼란과 당황 속에 노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단절성 이외에도 노년기에는 자녀의 독립, 본인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15)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2), 29.

16) 김동일, *노년기생활* (서울: 대한노인회, 1995), 53.

수행의 제약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자녀의 결혼,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부부만이 남는 '텅 빈 둥우리'(empty nest)현상은 특별히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퇴직은 수입의 감소와 함께 역할상실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노인문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3. 노인의 여가생활 실태

노인들은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함에 따라 높은 비율의 노인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¹⁷⁾ 노년기의 여가시간은 무엇인가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여가는 청장년의 그것과 사뭇 의미가 다르다. 오늘날 노인들은 자발적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없는 역할을 강요당한 채무위무용 상태의 불가피형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노인에게 여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의미가 부여되는데, 하나는 노령기에 있어서도 일정한 사회적·가정적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서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나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여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여가와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¹⁸⁾

노인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여가가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무료함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노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강제성 및 의무성으로부터 소극적인 여가에서 벗어난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는 점과,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여가를 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처해줄 수 있는 여가 복지 시설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07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따르면 노인 여가활동

17) 박재홍, *노인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8), 303-305.

18) 박제간, "노년기 여가 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34.

을 13개 종류로 나누어 60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주 1회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라디오 청취와 TV 시청으로 월 1회 이상에 이르고 있다.¹⁹⁾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96.7퍼센트, 친구나 친척과의 만남과 친목 동창회 모임 등의 모임활동이 58.6퍼센트,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 참여 55.2퍼센트, 술이나 차 마시기가 42.8퍼센트, 장기, 바둑, 화투 등 놀이 및 오락 41.3퍼센트, 종교 활동 32.9 퍼센트, 스포츠 활동 20.6퍼센트, 취미활동 15.3퍼센트, 학습 5.8퍼센트, 여행 5.6퍼센트, 사회봉사활동 4.5퍼센트, 문화 활동 1.6퍼센트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노인들의 대다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여가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임 활동,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 참여활동과 종교 활동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 학습, 여행, 사회 봉사 등에 대한 참여와 중요성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또 현재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물어 본 결과 '대단히 만족하다'는 사람은 2.2퍼센트에 불과하고, '그저 그렇다'가 52퍼센트, '별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가 20퍼센트로 나왔다고 한다. 이렇듯 노인들은 제한된 여가활동을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통하여 우리는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제1절에서는 노인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를 하므로, 제2절에서는 노인의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제 2 절 노인의 문제점

노인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현 시대 노인들에게는 현 사회의 문제점처럼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보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점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첫째, 사회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²⁰⁾ 즉, 농경사

19) 김수춘,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35-256.

20) 대가족 제도에서의 노부모의 행복감과 권위는 사라지고 자녀들의 눈치까지 보고 사는 노인

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나 제도가 변했다. 그 중에 가족제도 자체가 노인문제를 가장 먼저 발생시켰다. 둘째는 수명연장에 의해 노년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도 함께 발달하면서, 노년기가 길어져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는 가치관의 변화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높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의 위치가 저하되면서 노인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 경제적인 문제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56.9퍼센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²¹⁾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노후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조기정년제가 노인을 빈곤하게 했다. 한국 근로자는 55세 전후에 퇴직 당하고 있다. 그런데 IMF이후에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까지 퇴직되면서, 부모들은 노후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둘째는 자녀 교육비 과다지출이다. 한국 부모만큼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노인세대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 등의 과다지출로 자신들의 노후생계를 준비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 셋째는 가족 부양기능 저하가 원인이다. 핵가족화와 소가족화 그리고 여성인력의 직장진출로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경로 효친에 대한 의식의 약화로 노인들의 부양을 자녀들이 책임지던 전통적 생활규범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²²⁾ 마지막 넷째는 노령기의 연장이다. 1910년경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영아사망률이 높아 불과 25세였다. 1950년에는 50세, 2000년에는 75세가 되었다.²³⁾ 노후대비가 없는 수명의 연장은 결과적으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안겨 줄 뿐이었다. 이러한 재정부족에 대한 문제는 나라의 지원과 일반

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1) 박상하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양서원, 2004), 202.

22) 김수춘,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77.

23) 한정란,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2001), 171-173.

시민의 기부와 효율적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의료보호 문제

노인의 의료보호는 생계대책과 더불어 노후생활에 절대로 중요한 요소이다. 고령 노인의 의료문제는 질병관리, 의료비 지불, 그리고 장기보호대책 등이다. 현재 65세 이상 한국노인의 87퍼센트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약 43퍼센트(약 13만 명)은 거동도 할 수 없는 심신장애 노인이다.²⁴⁾ 이들은 집안이나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아 살아가는 의존성 노인들이지만, 가장 걱정하는 일은 의료비나 간병비용 부담이다. 현재 노인들은 의료보험이 있어도 병원진료비나 입원비의 20-50퍼센트를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어, 본인의 용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요양문제다. 치매나 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24시간 보호가 요구되는 중증 장애인들은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수의 요양원에서 생활보호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나 실비요양 보호를 제공하지만, 그 곳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3. 심리적인 문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이나 적응상태는 노인이 되어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출생해서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를 거쳐 이루어진 경험과 모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정을 거친 변화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²⁵⁾ 보통 학자들의 노인 성격 특성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고, 절망에 쉽게 동조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형식을 좋아하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의심이 많고 주위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이해력이 느리고, 작은 일에 관심이 많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²⁶⁾ 이러한 노인의 성격은 부정적인 관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24) 김수춘,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80.

25) 에릭슨은 '인간발달 8단계 이론'을 기반으로 8번째 단계의 노인심리를 '자아통합 또는 절망'으로 해석하였다.

26)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5), 25.

오죽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그들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가치관을 통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행동과 비교해 볼 때 매사에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엄격하고, 감상적이며, 체념을 잘 하며, 때론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가 쉽다. 하지만 노인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대인관계에서 보다 너그럽고,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하는 생활을 볼 수 있다.

4. 사회적인 문제

현세대 노인들은 정년퇴직 이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하고 노후생활에 알맞은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심신기능의 저화와 은퇴생활에서 오는 소득감소 및 역할 상실감 등으로 소외감이나 고독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²⁷⁾ 그러므로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노후생활에서 오는 고독감을 극복하고 여생의 목표와 활동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여가생활을 개발해야 한다.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길어진 노령기를 재미있고 보람 있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²⁸⁾ 그것은 먼저 재취업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는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세대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은 주로 TV 시청이나 친구, 친족들을 방문하는 일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다양한 취미와 봉사활동을 습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4만 여개의 경로당들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는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이다. 노후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곧 경제활동, 정치활동, 종교적 활동, 봉사활동, 친목활동,

27) 임춘식,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서울: 유종출판사, 1992), 45.

28)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서울: 한울, 1992), 57.

취미활동 등을 통칭한다. 되도록 같은 세대만 어울리지 말고 모든 세대와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²⁹⁾

노인에 대한 이론은 그래도 제2절에서 다루었듯이 노인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제3절에서는 해결방안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서론적 고찰을 하면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해결책의 하나로 교회와 상관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 3 절 노인 복지에 대한 이론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문제는 더 이상 국소적인 차원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보호시책을 펴고 있으나, 그 수준은 너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1. 노인 복지 배경

노인복지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사회생활 중에서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애 주기의 후기 또는 완성기에 처한 인간의 복지라 할 수 있다.³⁰⁾ 노인복지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 한다면 현재 사회에 부딪쳐 있는 노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노령화의 심화가 배경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2000년에는 7.8퍼센트, 2007년에는 벌써 10퍼센트를 넘어 10.465퍼센트, 그리고 2010년엔 15퍼센트³¹⁾를 내다보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생산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의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가족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고독을 갖게 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노인복지가

29) 호주 플린더스대학에서는 70세 이상 1,447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장수하는 노인들의 비결은 폭넓게 다양한 계층과 사귄다는 점이다. 100세 이상자는 거의 대부분 종교를 갖고 있었다.

30) 강영실, *노인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 사업* (서울: 기독교서회, 2001), 24.

31) 2년 전에는 2010년에 9.4퍼센트로 내다보았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빈곤 문제³²⁾가 배경이 된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을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 노년기의 생활 기간은 길어지게 되어, 일단 퇴직하고 나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기에 경제적 빈곤에 처하는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인들의 경제적 자활능력 유무를 알아본 조사에서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비 전부 혹은 일부를 번다는 노인은 21.8퍼센트, 재산소득 또는 저축이자에 의하는 노인은 9.0퍼센트,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노인은 78.2퍼센트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배경은 건강문제³³⁾에 있다.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수입절감으로 적절한 건강보호를 받을 수 없고 만성적, 장기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은 노환으로 정신질환을 노망이라 하여 환자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성질환의 경우 가족, 특히 며느리의 심리적 부담이 크며 이는 가족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주요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가족들의 노인 보호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노환이나 치매 등의 가정에서의 간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노인복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와 부양 기능의 변화³⁴⁾가 배경이 된다. 산업화 과정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 직업을 찾아 도시로 집중하게 됨으로 핵가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세워 줄 자녀는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유교적 효도중심의 대가족제도는 붕괴하게 되었다. 산업화에 따라 나타난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는 개별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사상들은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화되어 경노효친 사상은 더욱 희박하여 자녀들은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어졌다. 이러한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에 노인을 위한 복지는 확대할 수밖에 없다.³⁵⁾

32) 김영종,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2005), 34.

33) Ibid., 37-39.

34) Ibid., 40-43.

35)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 의하면 대도시 지역에서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29퍼센트, 읍면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에서는 6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은 사회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홀로 남은 유자녀의 발생,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 노인세대의 증가로 부양기능을 보강할 다른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요구된다.³⁶⁾ 노인은 젊은 시절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유지기반인 가정을 이끌어온 세대로서 사회의 이익과 공헌을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노인복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다.³⁷⁾ 노년기의 여가생활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정년 후 짧게는 10년, 길면 40여년을 보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노인이 다시 일하기엔 더욱 어렵고, 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만큼 어려운 일은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2. 노인 복지 가치관

노인복지의 제도와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의 기반 위에 성립되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을 사회복지 가치관이라 한다.³⁸⁾ 우리 사회에 적절한 노인복지의 가치로서 인도주의, 상부상조, 평등주의, 경로효친 등 네 가지 가치관을 들 수 있겠다.

첫째로 노인복지 가치관에는 인도주의에서 출발한다. 인도주의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존중 사상과 모든 인간에 대하여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박애사상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가치관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³⁹⁾ 노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36)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8), 47-49.

37) 강영실, *노인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 사업*, 57-59.

38) 최종훈, *지역사회를 바꾸는 도시 목회*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2).

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생산 지향적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생산성의 저하로 그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인도주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인도주의는 노인복지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노인복지 가치관에는 상부상조에 있다. 상부상조의 가치관은 공동체 의식에 입각하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재해나 불행을 당했을 때 물질과 서비스로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려는 의식을 말하며 이는 곧 공동체에 속한 개인, 집단, 또는 지역 사회의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는 사회 연대의식을 말한다.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연대책임과 상부상조는 현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노인세대에 대하여 비노인 세대인 노동 세대가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부상조의 가치관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노인복지 가치관에는 평등주의에 있다. 노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가치관의 하나는 평등주의이다.⁴⁰⁾ 평등주의는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이다. 평등주의의 가치관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헌법에 반영되어 왔다.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⁴¹⁾ 이 규정은 평등주의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가치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체제 속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져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가치관이다.

넷째로 노인복지 가치관으로는 경로효친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현대적인 노인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다.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현대

39)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의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천명하고 있다.

40) Derrel R. Watkins, *기독교 사회봉사 입문 (Christian Social Ministry: An Introduction)*, 노영상 역 (서울: 쿤란출판사, 2003), 57.

41)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적 상황에 적절하게 변용되어 계승되는 길은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책임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연대책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경로효친의 사상은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의 가치관으로 어울리는 것이 될 것이다.

3. 노인 복지 정책 현황⁴²⁾

가. 소득 및 고용보장 정책

먼저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이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규범적인 계약관계가 불문율로 존재하여 가족부양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었다.⁴³⁾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가족부양의 전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은 저조하여 대부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과 공공부조 방식의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사회보험으로 공적연금⁴⁴⁾이 있고,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또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노령연금으로서 제구실을 하기에 그 수준이 미약하다. 두 번째로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이것은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기에 노령연금, 즉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1991년부터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등에게 월 1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다가,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무각출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연금지급액수가 5만원 미만의 작은 액수이어서 이 액수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령수당제도를 경로연금제도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현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 보

42) 박창빈, *노인문제현황과 교회의 역할* (서울: 예장노인학교연합회, 1999), 54-63.

43) 이승렬, *21C 교회노인교육의 전망과 대책*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1), 55.

44)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장을 위한 일대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타로 경로우대제도⁴⁵⁾가 있고, 세제감면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노인고용보장정책이 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이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은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퍼센트 이상 채용할 의무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을 기업에서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보건 및 의료보장

첫째로 의료급여가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보조이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진료소, 약국 등이 있다. 둘째로 건강보험이 있다. 이는 국민의 질병, 불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이다. 독일과 일본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간병보험이나 개호보험도 최근에는 노인을 위한 중요한 의료보장의 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 중에 있다.⁴⁶⁾ 넷째로 건강검진이 있다.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해 왔으며, 매년 약 3만 명의 노인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 제도는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진단과목이 부족하며 실시 일정이 비정기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1차 진단에서 유병 상태가 확인되었어도 이에 대한 치료대책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데, 후속적인 조치로서의 건강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5)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어버이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하여,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46) 이승익, "노인학교운영의 실제,"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75.

4. 노인 복지 과제

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⁴⁷⁾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나 다양화 그리고 수적 증대는 불가피하다. 서비스 수준과 비용 부담문제에 따른 다양한 시설보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시설보호서비스의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이 보호내용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는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조사연구에서도 밝혀졌다.⁴⁸⁾ 정부, 기업, 민간단체들에 의한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에 의한 양로원 시설 등의 확충이 중요하게 제기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나.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⁴⁹⁾

평균수명의 연장 즉, 노령화가 은퇴시기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55~58세 사이에 강제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의 혜택은 60세부터 받게 되어 있어 인구노령화가 진전되기 시작하는 가까운 장래에도 개인의 은퇴시점이 크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은퇴시기의 연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연령의 연장, 국민연금의 최초 수혜시점의 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60세 또는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하는 노인들에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을 주든가 퇴직 후 연금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⁰⁾

47)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212-223.

48) 노인복지가 잘 안되어 원인에 대해 질문 중 응답자들 중 43.2퍼센트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괄적인 노인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했고, 26.2퍼센트는 노인복지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현행 경로우대제도가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17.6퍼센트를 보였다.

49) 임춘식,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225-228.

50) 고령자고용정책을 통해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 할 기회(정규직이든 part time이든)를 갖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성취감을 준다는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의료서비스의 강화⁵¹⁾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불가피하게 악화되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 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은 쇠퇴, 외로움, 손실, 무용성 등이며 바로 이러한 특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과 함께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는 사회보장기능을 확대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 노인들을 의료보험에서 분리시켜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료와 조세의 복합적인 재정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합적 자원조달정책은 병의원 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되 현재보다 본인 부담율을 다소 낮추고 병의원에 대한 대체서비스인 중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⁵²⁾

라. 정상화 이념의 구현⁵³⁾

정상화 이념은 원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대등생활의 원칙에 따른 정책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 폭넓게 이 이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로 부터 격리된 시설보호에서 통합된 시설보호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역사회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거리상 고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 시설이 위치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계층분포도 고려한 것이어야

51) 김동배,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서울: 예안출판사, 2002), 89-91.

52)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 가정과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간시설의 필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재가노인을 위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로서 먼저 치료중심의 가정간호, 재활요법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중간서비스, 개인요양이나 수발을 위한 기본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53) 김동배,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93-94.

한다. 또한 교통시설의 분포를 고려한 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시설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의 고려, 건물의 외형에 대한 관심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⁵⁴⁾

마.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실현⁵⁵⁾

오늘날 사회복지 욕구의 질의 변화가 재택서비스를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단지 받기만 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복지를 요구하고, 스스로 복지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가운데 재택서비스가 주가 되고 시설서비스는 재택서비스의 보완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시설서비스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의식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의 적극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상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노인에 대한 바른 이론을 위하여 노인에 대한 개념과 그들의 변화와 특성 그리고 여가생활을 살펴보았고, 이 바탕 위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아보았는데 현 사회의 문제점처럼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적인 문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노인에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노인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앞으로 노인복지의 과제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은 왜 노인복지를 교회에서 시행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위치와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를 통해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해야 할 당위성을 밝히고자 한다.

54) 이러한 추이의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변동 사회변동 등으로 인한 복지대상자의 격증과 복지욕구의 다양화 고도화에 대해 종래의 시책으로서는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55) 김동배,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95-96.

제 3 장

노인복지와 교회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한 노인의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한정된 사회복지예산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므로 국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민간차원의 노인복지 활동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⁵⁷⁾ 제3장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와 교회의 연계성을 다루려고 한다.

제 1 절 성경과 노인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하는 목적은 일반사회사업처럼 인간의 욕구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위치와 역할 그 기능에 다른 젊은 사람들과 동등하기에 그러한 존재 가치 위에서 노인복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1. 성경에서의 노인의 위치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노인은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와 지위를 확보하였듯이, 고대 중동지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로 간주되어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스라엘 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근

56) 김동배,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98-99.

57) 이교갑, *교령화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52-55.

본으로서 그들의 지혜와 경험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욥기 12:12, 32:7). 또한 노인은 사회의 준 사법적 권위를 가진 자로 위기에 처한 왕의 자문관(왕상 12:6-8)으로 백발의 영적 지도자(잠 16:31)로 경건과 신앙이 두터운 자(시 34:11)로 장수 속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욥 12:12 시 119:100)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성경에서의 노인의 위치란 단순한 죽음을 향해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정노정의 복된 순례의 과정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자로 인식하며 살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도 아니며 소외와 슬픔의 시기도 아닌 내적인 성숙의 시기로서 원숙한 삶의 모습과 결실을 가져오는 시기(시 92:14)라는 것이다.

물론 노년의 위치와 삶에 대하여 구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말씀하심으로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여가지만,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노인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 경건의 대상,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 인식되어지기도 하였다(욥 5:26)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5절에서 장수를 약속하였으며,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법들을 존경하는 모든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성경에서 노인은 지혜의 보고요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삶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경은 노인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며 따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노인의 권위는 하나님의

58) 배재군,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5), 12-13.

로부터 수여받은 권위이며, 노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그들의 고귀한 삶의 경험을 나누어야 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의 내용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신 5:16; 엡 6:3)고 공히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욥 12:1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 성경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기능

위에서 언급한대로 성경에서는 노인을 물리적이거나 심리적, 사회적 퇴락 및 우축의 단계가 아니라, 노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와 성숙의 단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 또한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로 이해됨으로서 존경과 권위의 대상으로서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로 확보하고 있었다. 먼저 노인들은 가정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기능, 종교 활동의 주도자, 사회질서 유지자, 그리고 정책적 조언 및 자문가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다.

첫째로 노인은 가정의 대표자였다.⁵⁹⁾ 이스라엘 민족을 상기해 볼 때 가장 그들에게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온전한 가정생활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선택된 민족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가정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질서는 노인들에 의하여 교육되고 통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는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교육의 수장이었다.⁶⁰⁾ 이스라엘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교육이었는데, 이 부분을 노인이 담당했던 것이다. 노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웃과 하나님을 가르치며 교훈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회당 교육은 바로 이 노인들의 지혜와 교훈이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교육장이었다. 이

59) 한명숙, “한국기독교 노인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정책과학대학, 2003), 4-9.

60) 박창빈, *노인문제 현황과 교회의 역할*, 45-49.

처럼 노인은 후세를 위한 가르침과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이 주어졌던 것이다.

셋째는 종교 활동의 지도자였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 종교에는 가정과 민족의 정통성의 전수 및 수호를 위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및 제사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담겨져 있는 교육이 바로 종교교육이었다. 노인들은 이러한 종교 활동의 주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계를 지는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준 사법적 기능을 노인들이 담당했던 것이다.⁶¹⁾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는 위에서 제시한 가정, 교육,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철저한 사회질서의 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 경제,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분명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질서는 노인과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지역의 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섯째는 노인은 정책의 자문가로서 역할을 감당했다.⁶²⁾ 노인과 장로들은 국가 및 사회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조언했던 정책적 조언자 및 자문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중대사에 개입하고 조언하고 자문함으로서 정치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스라엘 사회가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안전한 사회와 국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다양한 노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역할들이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됨으로서 심각한 노인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3. 성경에서의 노인복지

기독교가 노인문제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 노인 복지 사상은 인간의 존중사상, 경로효친 사상, 사회참여사상 등이다. 쇠약한 노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돌봐드리고, 그들을 공경하며,

61) 한명숙, “한국기독교 노인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2-16.

62) Ibid., 18-22.

그들에게 유익한 지혜를 구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자기 상실의식⁶³⁾과 사회적 고독을 방지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노인복지 내용이다.

그 대표적인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32절, 20장 9절, 20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1절, 신명기 21장 18-21절, 28장 16절, 32장 7절, 욥기 12장 12절, 32장 7-10절, 시편 71장 7-9절, 18절, 잠언 1장 8-9절, 19장 26절, 20장 29절, 23장 22절 등이다. 신약 성경의 노인복지 근거는 마태복음 15장 4-6절, 마가복음 7장 10-12절, 사도행전 2장 17절, 골로새서 3장 20절, 에베소서 6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2절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첫째, 노인복지는 부모공경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부모라는 낱말의 개념을 친부모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의 노인들 그리고 친척이나 이웃에 살고 있는 노인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혈육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신앙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늙은 과부들을 나의 부모처럼 생각하고 도와준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 행해야 할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출 20:12). 이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⁶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고 하셨다. 이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그 공경하는 자들이 잘되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넓은 의미로는, 한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가 잘되고 번영하려면 부모공경과 노인복지가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는 영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는

63) 현 시대는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노인 복지에 관심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과거 노인이 존중되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천되어 가면서 가족의 부양 기능이 상실되면서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소외를 받게 되었다.

64) 이것은 자율적인 의무에 속한 계명이다.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시면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불러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보살펴 드릴 것을 부탁하셨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셋째, 노인복지는 곧 자신의 일임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아 계속 성장한다. 신앙 좋고 조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영성지수(SQ)가 높고 영성지수가 높아 가면 지능지수(IQ), 감성지수(EQ)와 사회성 지수(SQ)가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잘되도록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계명으로 주셨다. 시편기자는 아무리 젊은 자녀들도 몇 십 년 못가서 70세가 되고 강건하면 80세까지 사는 늙은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곧 자신의 일인 것이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성경에서는 노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경건의 대상 그리고 계명을 지킨 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들은 결코 나이 많은 천덕꾸러기가 아닌 삶 전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로 가정의 대표자로, 교육의 수장으로, 종교 활동의 주도자요 사회질서의 자문가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노인을 돌봐 드리고 공경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사회복지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지역사회와 노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대표자요 자문가요 또한 교육과 종교 활동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자리였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섬기는데 지역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개념과 기능 그리고 교회의 개념과 기능과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의 역할을 통해 교회가 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와 특별히 노인복지에 관심 가져야 하고 실제로 감당해야할 것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봄으로 교회가 구체

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할지를 규명코자 한다.

1. 지역 사회 개념과 기능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 행정가, 정치인, 자원봉사자들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의는 종교,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⁵⁾ 이러한 비과학적인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역주민들의 협력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연대의식의 강화'라는 표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⁶⁾

지역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로스는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능적인 지역사회란 복지 농업 교육, 종교 등에 있어서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일반적이고도 기능 중심의 지역사회에 관한 개념이 같은 문제점은 그것이 지역적인 경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집단인 위원회, 연합회, 협회, 협의회 등과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지리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는 복지활동의 경우 그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또 기능적인 지역사회에는 그 구성원이 반드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 역할이 특정 지역의 복지증진의 목표와 부합하느냐 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⁶⁸⁾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해 지역사회를 정의한다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는 교회가 속한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의 생활방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협동체를 조직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갖춘 공동체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사회복지 개념을 지역사회조직이나 지역사회 개발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사회복

65) 특정종교의 신조집단, 특정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집단 정치적,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같이하는 이익집단 등 지역적인 토대를 갖지 않는 집단의 경우까지 적용되고 있다.

66)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01-103.

67) 오정수, 류진석, *지역 사회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6), 78-81.

68) 임관택,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1), 4-5.

지라는 용어는 지역사회와 복지의 개념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넓은 의미를 지니고 그 개념도 다양하다.⁶⁹⁾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적, 비조직적 노력은 동서고금의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에 존재하여 흔히 '사회복지'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한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⁷⁰⁾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으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라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데서 그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지역사회'(ideal community)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지역사회란 어떤 상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위대한 사상가인 린데만(Eduard Lindeman)은 그의 저서 '지역사회'에서 다음 9가지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⁷¹⁾

지역사회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통해 경제적 안녕,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공공의 보건기관을 통해 육체적 안녕인 보건과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조직적이고도 잘 마련된 놀이를 통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게 한다. 지역사회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인 도덕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모든 사람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식의 보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모든 주민이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한다는 민주적 형태의 조직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신앙적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⁷²⁾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려 하는 노력은 어느 특수 전

69)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9-11.

70) 배재군,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15-18.

71)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 참여 방안"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85-87.

72) 또한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의 주요 제도가 맡은 바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문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사업, 공중보건, 성인교육, 공공행정 도시계획, 정신건강 등의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나 정치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지역사회 복지개념을 정리해보면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주민의 생존 곧 생명과 생활을 위해 공적이고 사적인 기관이 협동하여 조직화하여 생활환경과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 시책 및 방법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모든 복지 특별히 노인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가. 사회 속의 교회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또한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상적인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실천의 윤리적 당위성을 뜻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진, 사회와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에 있으면서 부단히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한편 윤리적으로 보면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교회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⁷³⁾

그러나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선교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첫째,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치중하는 낡은 유형이 그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는 마치 교회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선교활동은 교회중심의 것이어야 한다는 신조와 태도이다. 이런 태도가 선교를 바로 막았던 사고였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이런 유형 속에서 사회에서 멀어졌던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 지역교회는 교회가 존재하고 교인들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주민의 삶의 현실과 현장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문제이다. 소위 지역과 상관없는 유명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많다보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는 하등 관심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⁷⁴⁾

73) 이원규,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1998), 38-42.

그러므로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야 한다. 선교는 이제 단순히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해 오는 복음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교는 또한 교회가 사회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들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구조적인 사회적 악과 불의, 부조리와 모순의 현실을 바로잡는 인간화의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역시 변화시키는 일인 것이다.⁷⁴⁾

이렇게 교회의 선교대상으로서만 의미를 지녔던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눈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믿음의 실천이라는 요구와 사회로부터의 고통분담이라는 외부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대상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상대역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가 지리적인 개념으로서 근거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교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요청된다.

나. 신학적 근거

(1) 구약성경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관심을 성경적으로 볼 때 창조신학에서부터 출발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분부하셨다. 여기서 우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으며, 사회봉사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⁷⁵⁾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중단된 인간의 사명을 계속 펼쳐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심으로 인간 구원의 세계적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을 구약성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사건이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묘사된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의 권력아래서 힘겨운 종노동을 하며 온갖 학대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

74) 박종삼,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2002), 77.

75) Ibid., 81-81.

76)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1995), 36.

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역사적 사건이다. 가나안 정착 후 하나님의 관심은 집요하게 계속되었는데, 법률로서 제도화된 계약법이 출애굽기 20장 22-23절에 나타난다.

이 계약법의 골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 등을 보호하는 그들의 사회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약하고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소외 그룹에 속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라는 교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법제화하셨다(출 22:25-27). 이 규정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던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엄한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가난하고 외로운 힘없는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돕기에 힘써야 한다. 추수하는 방법과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으로 극빈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레 19:9-10; 25:1-10; 신 14:28-29; 15:7-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추수하는 방법을 통해 극빈자를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이 규정의 법제화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자들의 땅에서 추수 시에 떼어 떼이 이삭을 주을 수 있었다.

신명기에서도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신 14:28-29; 15:12-15)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규례는 항상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그 규례대로 사는 자는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신다. 또 심일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억압 받는 자들에 대한 자유를 찾아 주실 것도 규정하여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점점 타락하여 그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마침내 약자의 삶은 가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선 수많은 예언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봉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비판하였는데,⁷⁷⁾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나그네 등을 섬길 것을 거듭 강조했으며, 선지자 아모스는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의 물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77) 이만식, *교회의 사회봉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2000), 110-112.

5:24)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힘차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정의로 가득 찬 백성들의 희열이 충만한 외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는 특히 당시 약자로서 천대받던 어린이, 병자,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대로 행하며 또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섬김의 삶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4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복음전도보다 먹이는 일에 더 치중하게 되므로 말씀 전하는 사람과 먹이는 사람을 각각 나누어 그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11장엔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각각 그 힘대로 헌금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별히 에베소교회를 향해서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린 다른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명령들을 볼 수 있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령들을 보고들을 수 있다.⁷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대는 가난의 가장 근원적인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정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울부짖는 인간들과 함께 연대하여 아주 진지한 육화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존재론은 실제로 가난한 육화의 꽃이다. 역사의 질곡 속에 스스로 참여(마 25:31-46)하여서 인간 해방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삶은 실제적 가난과 존재의 비하로서 그려질 수 있다. 예수님의 사회복지사상은 재산의 공동분배나 사회 공동의 이익 분배 등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눅 12:15-21). 예수님의 복지사상은 무엇보다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함으로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켜 가자는 것이다.⁷⁹⁾

78) 유수현, *한국교회와 사회사업의 실천-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도 많더라* (서울: 기운실총서, 1999), 38-40.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인간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존엄성과 힘의 균형이었다. 오랫동안 부정한 여인(눅 8:43-48)을 치유하시므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에 새롭게 접근하셨다. 주님의 복지사상은 당시 여성을 둘러싼 상벌제도에 대한 도전(요 8:4-11)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는다. 복지의 중심은 상호존중(마 18:23-24; 눅 6:39)의 관계에 기인한다.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대하여 주님은 인간의 참된 복지를 위한 결혼제도의 본질을 재 기억시키시고, 사람들이 이루어 가야할 관계의 윤리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막 10:2-9).

다. 사회적 근거⁸⁰⁾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사명의 의미는 하나의 논쟁거리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단순히 교회의 여러 직무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적 쟁점들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막상 일차적인 종교적 직무에는 소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사명의 중심엔 기독교의 본질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초기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오는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정치-사회적 불의라든가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현대사회에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보이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 경고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대한 관심은 한시도 그치지 않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⁸¹⁾

79)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 집, 1999), 112-113.

80)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교회의 대 사회 직무, 교회가 수행하는 수많은 직무들 중에서 사회에 국한된 직무, 교회의 종교적 사명과 또 다른 영역에서의 직무, 교회 자체의 목표나 목적을 의미 등이 있다.

81) 그럼에도 교회의 사명 자체와 사회적 사명은 최근에 이르러 더 큰 논쟁거리로 등장해왔고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현대 사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사회의 변화하는 본성

사회의 변화하는 본성에 대한 자각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 두 번째 요소이다. 현대사회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혁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현대는 사회의 본성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켰고, 사회의 가변성과 사회 구조의 역사성에 대한 의식은 증가되었다. 사회의 구조들,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직업의 역할 등은 이제 더 이상 신적 명령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대신 사회는 역사적 조건의 영향 아래 있으며, 늘 변화에 열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구조가 변형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의식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보다 더 중요하고도 의미 있게 해 준다. 개인이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사회적 사명이 사회의 구조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비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각 개인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⁸²⁾

(2) 사회적 불의에 대한 의식 변화

세 번째 요소는 오늘날 세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의식이 점차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과 기아는 인류 역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으며 전염병과 기근은 번번이 인류를 황폐케 해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주목할 만한 현상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⁸³⁾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러한 불균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되었다. 많은 경우에 부유한 국가들이나 민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결코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그렇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부(富)를 가난한 국가들과 함께 나누고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국제적 빚을 재조정하고, 과제형태를 보다

82) 교회는 개인의 죄와 각자의 도덕적 잘못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당한 구조와 착취도 비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83) 어떤 국가들과 민족들은 건강관리라든가 의식주의 걱정이 없는 반면 또 어떤 국가들과 민족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많은 기아와 질병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아, 가난, 질병의 정치사회적 원인들에 대한 성숙된 의식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자선사업에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정치-경제적 생활에 대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3) 이론과 실천사이의 관계

교회의 사회적 사명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는 네 번째 요소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과거에는 이론이란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지식으로서 실천과 관련되었다. 사람은 우선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실천에 응용한다. 실천은 지식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이나 기술이었으며, 교회의 봉사직이나 실천신학, 선교 등은 단순히 기술이나 적용의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론-실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실천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실천이란 이제 더 이상 이론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론의 단순한 파장이 아니다. 오히려 실천은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와 우리의 전통을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실천은 단순히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천은 살아가는 한 방법이며,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지식의 원천이다.⁸⁴⁾

(4) 현대 사회복지사업의 변화

네 번째 요소는 현대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이다. 사회복지 사업은 그 주체가 서서히 국가로 옮겨가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에는 교회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많은 사회복지 사업들, 예를 들면 병원, 고아원, 교육 사업들은 오늘날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 병자들을 돌보는 일, 교육 등의 사업 확장은 시와 정부의 일로 떠넘겨지게 되었고, 이에 교회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한가? 일반 병원이나 혹은 비종교적인 개인 병원과 대조해서 가톨릭 병원은 어떤 점들이 다른가? 교회와 한

84)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실천과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이미 습득된 지식의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통찰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법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가지는 의미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디아코니아(Diakonia)는 보편적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해석은 ‘봉사’, ‘준비하는 일’, ‘구제’, ‘부조’ 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봉사는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용어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기독교 복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봉사나 섬김으로 해석되는 디아코니아의 진정한 의미는 치유와 화목의 행위라는 뜻이다. 즉 상처를 싸매고 갈라진 틈을 메우며,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디아코니아의 가장 좋은 예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⁸⁵⁾은 크게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으로 대별된다. 사회봉사는 구제와 노력봉사를 의미하며, 사회 행동이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의 문제가 불합리한 사회 환경에서 일어난다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환경에 직접 개입하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만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는 개인적인 사회활동을 보다 많이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85)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신학적 반성은 서서히 제도적 구조에서부터 종교적 본질과 교회의 목적으로 옮겨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세기에는 프로테스탄트주의와의 논쟁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가톨릭교회의 제도적 구조와 직무들을 지지케 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호교론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20세기는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구원의 성사로 정의함으로써 교회의 종교적 본질을 강조하였고, 이는 제도적인 시각에서 신학적인 시각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회가 조직이라는 단순한 제도적인 구조로서 이해되기 보다는 종교적인 본질 안에서 이해되고 또 성사적인 영역에서 이해될 때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더 이상 교회 조직이 수행하는 여타의 특별한 직무들 중의 하나가 아니며, 오히려 교회의 종교적 본질의 상징이자 성사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상징화하는 행동하는 교회인 것이다. 교회의 충만하고도 본질적인 행동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은 교회로 하여금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에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에 입각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성경에서도 여러 장면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정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⁸⁶⁾

3. 지역교회와 노인복지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영역이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 조직 안에 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고 지역사회는 자체로는 과학과 인본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다소 다를 뿐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교환적이고 또한 보완적이다.⁸⁷⁾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는 인적·물적·재정적 시설자원을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풍부한 사회자원이다. 지역사회가 요청할 때 교회는 조직체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교육관 등 제반 부대시설을 지역사회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민간시설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본질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정부의 협조아래 시설을 설치하고 교회가 운영하도록 지원하면 가장 효율적인 지역사회 종합복지 서비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⁸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은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종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들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의무를 지니고

86)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장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섬김을 통한 사회적 선교는 교회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팽배되어 있는 사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촉매자로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87) 강준렬, *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87-89.

88)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67-69.

있다. 교회와 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봉사란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인간복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를 다루는 제법, 프로그램, 임금, 서비스 체계 등의 사회 복지적 개념과 지역사회의 가족 및 집단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돕는 사회사업적 개념 모두를 포괄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접근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체제 안에서는 지역단위로 복지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가용자원 동원과 효율적인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 등에 대한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인 교회가 주도할 수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협력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 몇 가지 있다.⁸⁹⁾

첫째,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지방정부와 교회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력·제정한다. 둘째, 중앙·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조정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자 자원봉사자 배치훈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협력체계 구축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서비스를 막고 과잉 공급되는 자원을 조절하기 위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적 서비스로 정부가 지역마다 보육시설을 법적 규정을 통해 설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교회가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미인가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불필요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⁹⁰⁾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다름과 같은 역할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⁹¹⁾

첫째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형제애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의 신앙행위는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안녕을 주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소외받는 이웃, 불평등 속에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형제애적 역할이 있

89)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출판사, 2000), 125-128.

90) 또한 개 교회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서비스 구축망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욕구와 정보, 소비자의 욕구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91) 배재균,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32-35.

어야 한다.

둘째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사회 지지체계 (community support system)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교육, 사회, 경제, 문화 등 가치적 접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인간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비교육적 하위문화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가져야만 한다.

셋째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는 개인이나 가족과 큰 사회기관을 다루어 나갈 때 이들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된다. 곧 지역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결속과 지역복지에 책임을 공유함은 물론이요, 문제가 있을 시 교회는 완충지역으로 제사장적인 역할(벧전 2:9)을 감당해야만 한다.

넷째는 교회는 사회 행동적 역할을 가진다. 교회는 때로 사회활동을 요구하는데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하고 사회적 요인들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곧 문제 시 중재역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적응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를 말한다.⁹²⁾

다섯째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변론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는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억한 자들, 힘없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의 변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⁹³⁾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역복지센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모든 시설은 그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실천함으로 아무도 생활에 궁핍한 자가 없었다.⁹⁴⁾

교회는 이렇게 여섯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지역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 관건이다. 이 두 관계는 그 어떤 이익단체보다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지역에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92)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도상에서 단순히 강도 만난 자를 돕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게 만든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예화가 곧 사회 봉사와 사회행동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93) 우리나라는 소액피해제도가 잘 발달되어있지 않다. 큰 액수야 변호사를 사도 승산이 있지만, 약한 자의 피해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교회가 변론자가 되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94) 사도행장 6장에 보면 당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 7집사를 선택하여 해결한 사례가 나온다. 교회가 바로 그 7집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지역교회를 통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정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일원화로 지역사회와 교회간의 사회복지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중복을 피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직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로써 협력을 통한 정보교환과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증추적인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사업을 위한 종합적 추진 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셋째, 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정과 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하는 것이다.⁹⁵⁾

이상을 요약해보면 먼저 교회와 지역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왜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지, 곧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함이다. 먼저 지역사회 개념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상 교회는 지역주민의 생존에 불가불 협력해야함을 역설했다.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교회의 모든 자원들은 결국 사회봉사를 실천하기위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점이다.

제 3 절 노인복지와 교회 관계성

이상을 요약해 보면 교회와 지역의 관계를 규명하므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교회는 이러한 지역의 연관 속에서 지역에서 행하고하는 노인복지의 당위성과 역할 그리고 현황에 대하여 논하면서 노인복지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교회와 노인복지 당위성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퍼센트대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5) 앞으로 한국의 교회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들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때, 지역사회개발은 물론 더욱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다.

2022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퍼센트를 넘을 전망이다.⁹⁶⁾ 특히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 내 노인부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노인의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된지 오래다.⁹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다양화되는 노인문제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의 한정된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⁹⁸⁾ 그에 따라 민간이 협력하여 범국민운동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기업, 재단, 교회, 개인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외부자원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복지의 주체들이 사회복지실천분야에 합류하게 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노인문제를 정부의 자력으로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단체, 기관 혹은 종교단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 교회는 가장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과 연구와 실제적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단체다.

교회는 물적, 인적 자원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노인복지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사회복지 혹은 교회 사회사업은 일반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고 교회의 풍부한 자원을 연결시켜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등 사회복지 안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복지 분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이나 교회가 주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기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복지 분야 일지도 모른다. 교회 사회사업은 단지 노인들에게 복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까워진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복음 전도와 영혼구원의

96) 장차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97) 인간의 노령화 문제는 어느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로 풀어가야 한다. 사회복지란 어느 개인, 사회, 국가만의 힘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런 때 교회가 앞장서서 장소와 인력과 재정으로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98) 다시 말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의 한정된 복지재정과 인력으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도 부합한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는 왜 노인복지에 적합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회는 노인복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⁹⁹⁾ 노인복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다방면에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교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비전문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노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교회의 경우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재정연말 결산액을 조사한 바 3천만 원인 교회가 38.8퍼센트이고, 그 가운데 1억 원 이상인 교회가 14.9퍼센트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⁰⁰⁾ 교회는 헌금을 통해 경상비 외에는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기에, 노인복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동원시키는데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과 그 역할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에 시설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¹⁰¹⁾ 노인복지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위해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교회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부족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어려운 운영에서 교회의 시설 자원의 활용은 노인복지에 재정적 부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교회의 자원봉사 능력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¹⁰²⁾ 교회는 다른 조직보다 자원봉사의 동기가 강한 곳이다.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기의 유발, 능력의 훈련, 기회의 창출이다. 이러한 자원을 소유한 교회야말로 노인복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이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 조직을 구성¹⁰³⁾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자원을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다섯째는 노인복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출20:12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99) 임창욱,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3), 18-19.

100) 이만식, *사회복지 엑스포 통계 분석* (미간행출판물, 2005), 145-148.

101) 오성춘, *노인문제와 노인목회의 가능성* (서울: 예장총회사업부, 1999), 49-52.

102) 임창욱,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27-30.

103) 여전도회, 남전도회, 제직봉사부서, 교회학교 부서, 구역 등 조직이 많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이다. 이 계명에서 부모란 말속에는 모든 노인이 포함됨으로 이 계명은 모든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요 현대용어로 표현하면 노인복지를 하라는 말씀이다.¹⁰⁴⁾

2. 교회와 노인복지 역할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이다(마 5:13).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도와 사회봉사의 본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한 형제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막중한 사명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명을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던 것이다. 교회는 노인 복지의 실천을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실시해 왔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회는 말씀 선포, 교육, 친교, 섬김과 봉사¹⁰⁵⁾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섬김과 봉사는 오래 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다. 고대사회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지 못할 때 교회는 상부상조의 형태를 띠고 고아나 불우한 노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 구제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요 도움인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사랑과 섬김을 통한 선교를 통해 드러난다.

한국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활동이 미약하나마 시작되었다.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은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으로서 시대변화로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는 모든 사회문제나 서비스를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또한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¹⁰⁶⁾ 교회는 사회와의 관계적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다.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사회구성원이며 교회가

104)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인데 노인복지는 영혼구원의 황금어장이다. 가족이 가족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삭막한 세상에서 교회가 나서서 버려지고 외면을 당하는 노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노인복지를 하면 노인들은 결국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된다.

105) 보통 교회의 '4대 사명'하면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꼽는다.

106) 성규택 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1991), 26-29.

신앙공동체이자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는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주님의 뜻이요,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⁰⁷⁾

교회와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는 사회에 대해 봉사적 기능을 통해 노인복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사회봉사와 참여만은 아니다. 노인복지 사업과 교회의 역할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족분을 채워주는 보충적 기능이요, 잔여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첫째, 영적성장을 통한 존엄성을 회복케 하는 역할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가족의 문제 뿐 아니라 종교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다.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영혼의 평안함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곧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이런 의미에서 노인들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은 곧 그들이 잃어버렸던 존엄성과 상실된 역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역할상실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노인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위안이다. 상처받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위하여 교회는 편안한 가정과 같은 기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교육 제공자의 역할이 있다. 노년의 자존심을 보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만이 가능하다. 노인들의 자긍심의 함양은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감을 극소화시키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진정보다는 노인들의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교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타 기관과의 교량역할이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직접 자신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타 기관과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노인들

107) 성규택 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34-36.

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가장 행복한 노인은 비공식적인 활동,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¹⁰⁸⁾

다섯째, 시설, 인적자원 및 재정지원의 역할이 있다. 교회는 노인들을 위해 시설과 교육 자료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와 기존시설(본당과 교육관)을 개방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면 좋은 시설에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평일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회의 일부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⁹⁾ 교회는 노인을 위해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단체로서 교회에 모여 신앙문제 이외의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즉 교회는 다양한 전문직을 가진 교인들이 많다는 말이다.¹¹⁰⁾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노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교회는 노인이나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상호 교환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을 얻고, 교인의 헌금을 통하여 물질을 얻게 되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에 사랑과 섬김, 그리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3. 교회와 노인복지 현황

가. 교회 노인복지사업의 참여 실태¹¹¹⁾

사회적으로 민간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

108) 또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사회복지 단체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일도 가능하다.

109) 예를 들어 책상 및 의자들도 노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110)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사회사업가, 사회교육자, 음악전공자, 상담가, 교수(사) 등 다양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 공동체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111) 강영실,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서울: 도서출판 부스러기, 1998), 56.

한 특별한 관심과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사회복지참여의식 또는 문제의식과는 다르게 실제로 교회의 사회사업의 참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노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사업을 보면 매우 한정적이다.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교회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의 실천적인 영역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부 제한된 교회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¹¹²⁾ 그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개교회의 성장과 교회부흥에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 사회문제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들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교회의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현 교회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한계¹¹³⁾

첫째로 노인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교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인식부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가 젊은이들을 선호하고 중심이 되어서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이 많으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중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높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시설, 조직,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교회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근거로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목회적 기능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내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집단이 조직화되어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욕구를 지닌 노년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면

112) 대부분의 교회는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방문 및 지원, 식사대접, 호스피스 활동, 빨래, 청소와 같은 노력봉사 등의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어 개 교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113) 김성철, *노인복지중심의 복지목회 전망과 과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79-82.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전문 인력이 부재함을 들 수 있다. 현 사회는 전문화 시대이다. 교회에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명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주관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이나 사회기관과의 유대 관계가 결여되어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교회내의 행사로 끝나게 된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주택과 멀어지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올 수 있지만 노인들은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노인을 부양하거나 교회 출입을 돕는 경우가 흔치 않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노인의 교회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¹¹⁴⁾

셋째는 노년부(노인학교) 설치 운영의 미흡이다. 교회에서의 기관 운영은 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치며 신자들의 성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장년부는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노년부(노인학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아 고령의 노인까지 장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넷째는 재정적 지원의 미흡에 있다. 교회에서 많은 예산이 유치부나 주일학교, 청장년부에는 활용되고 있으나 노인을 위한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섯째는 자원봉사대 미조직이다. 교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원봉사자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경우 자원봉사대 조직이 없으며, 있다 할지라도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교회에는 많은 인적 자원이 있음에도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시적인 봉사로 감당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 노인의 문제는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기에 교회에서 왜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114) 교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결국 전교인들에게 돌아갈 과실이기에 노인 세대만을 위한 투자라고만 볼 수 없다. 누구나 교회의 노인 세대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충실한 교회는 미래의 노인들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기에 그만큼 교인들을 붙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을 살펴보았지만, 교회도 사실은 인적자원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노인복지의 가능성과 역할은 증폭되고 있지만, 아울러 교회의 한계적인 상황¹¹⁵⁾은 여전히 노출됨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교회는 노인복지를 통해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교육 제공자의 역할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교량역할하기가 적합하기에 교회는 노인복지를 사명으로 알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것이 본 절의 요지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논의했다. 먼저 ‘성경과 노인’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참된 모습은 축복과 경건의 대상이요, 계명을 지킨 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인식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 가정과 사회를 세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을 섬겨야 함을 설명했는데, 그 역할은 지역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특성상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교회의 모든 자원들은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노인복지와 교회’ 상관관계를 통해 국가의 한계적인 복지문제를 교회는 이미 노인복지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기에 교회의 한계적인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요지였다.

그럼 노인복지를 교회에서 해야 한다면, 강릉시에 속한 교회 중 그러한 이론대로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강릉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노인들의 삶의 현실은 여러모로 불리함에도 제도적 뒷받침은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릉노암교회와 강릉소망교회, 강릉중앙감리교회 그리고 강릉장로교회는 각자 독특한 사역을 통해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 교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분석하려고 한다.

115)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생활시설, 노인대학, 노인상담센터 등이 있지만 아직도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전문 인력 부재 그리고 시설 여건 등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 4 장

강릉시 4개 교회의 노인복지 활동

‘노인복지와 교회의 상관관계’에서는 먼저 노인의 참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봄으로 노인복지의 서론적인 입장을 찾아보았고, 그 토대 위에 교회와 노인복지의 관계성과 역할을 살펴봄으로 교회는 왜 노인복지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노인복지를 해야 할 원인을 규명했는데,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과제인 강릉시 4개 교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노인복지에 대한 과정과 현황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 3장에서 말하고자했던 교회의 노인복지 타당성이 과연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그 열매는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 1 절 강릉시 소개 및 노인 복지 현황

먼저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를 살펴보기 전에 강릉시 노인복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역사와 실태, 시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함으로 현재 강릉시 4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와 자연히 비교가 되고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강릉시 노인복지를 소개한다.

1. 강릉시의 개황과 노인인구

강릉의 유래를 살펴보면, 옛 부터 예맥족이 살던 곳으로 기원전 129년에는 위만조선에 영속하고 있었으며, 기원전 128년에 예맥의 군장인 남려가 위만조선의 우거왕을 벌하고 한나라에 귀속, 창해군의 일부가 되었다가 고구려 미천왕 14년(313년)에는 고구

려 세력에 합치게 되어 하서랑 또는 하슬라라고 불리었다. 그 후 신라 내물왕 때 신라의 영역으로 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에 명주라 하였고, 고려 충열왕 34년(1308)에 강릉부로 개칭 되었다. 공양왕 때에는 강릉대도호부가 있어 북쪽으로 원산에서 남쪽으로는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를 관할하였다. 조선시대로 들어 태조 4년(1395)에 강원도로 개칭 하였고, 고종 33년(1896)에 강릉군으로 되어 21개 면을 관할하였다.¹¹⁶⁾ 일제 시대인 1931년에 강릉면이 강릉읍으로 승격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5년에 강릉읍, 성덕면, 경포면을 합하여 강릉시로 승격과 동시에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개칭 분리 하였다가, 1985년 1월 1일 강릉시, 명주군을 통합하여 통합강릉시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으로는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쪽으로 동해와 접해 있어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며, 산맥의 급경사면이 바다와 접해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다. 기후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위도에 비하여 겨울철은 온난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어서 연기온의 격차가 적은 편에 속한다. 간혹 북동기류의 장시간 유입시 겨울철은 대설, 여름철은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겨울과 봄철에는 강풍현상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¹¹⁷⁾

강릉시는 면적은 1,04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1.72배이다. 이는 국토 전체의 1퍼센트, 강원도의 6.3퍼센트에 해당된다. 한편 총인구는 220,484명(86,364세대)으로 전국 총인구의 0.5퍼센트이고, 강원도의 14.8퍼센트에 해당된다. 강릉시는 강원도의 7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춘천, 원주와 함께 강원도의 중심이 되는 3핵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이며, 영동지역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강릉은 영동지역의 행정 도시로서 강원도청의 동해출장소가 위치해 있고, 교육중심도시로서 종합대학교가 2개, 전문대학이 2개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점과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금융 중심의 도시이기도 하다. 영동고속도로의 종점이며, 철도 영동선의 종착역이 있고, 서울과 부산행의 항공노선의 공항이 있는 영동지역의 교

116) 강원도 시사실록, 2006 강원연감 (2005), 267-290.

117) 강릉시, “강릉시 소개”, Online: http://www.gangneung.go.kr/sub.jsp?id_site=0000000001&id_menu=0000000005

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종합병원 6개와 대학치과병원 등이 있어 영동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강릉을 예부터 예향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먼저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국보가 하나 있고¹¹⁸⁾ 보물이 15개가 있고 사적이 두 개 있고¹¹⁹⁾, 명승이 하나 있고¹²⁰⁾ 천연기념물로 4개가 있고 중요민속자료가 하나 있고¹²¹⁾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36개가 있고 강원도 무형문화재가 3개가 있다. 그리고 강원도 기념물로 15개가 있고, 문화재 자료는 36개가 있다. 무엇보다도 강릉하면 강릉단오제¹²²⁾가 생각나고, 남대천의 연어, 태백산맥과 대관령, 이율곡과 신사임당 그리고 소나무¹²³⁾가 생각날 것이다.

<표 1> 강릉시 노인인구의 성별구성과 변화(단위: 명, 퍼센트)

구분	총인구(A)	노인인구(B)			총인구대비 노인인구점유비 (B)/(A)*100
		남	여	소 계	
1970	186,866	4,944	6,021	10,965	5.97
1980	230,843	5,294	7,423	12,717	5.51
1985	203,247	3,703	5,848	9,551	4.70
1990	217,107	4,417	7,451	11,868	5.47
2000	228,934	5,427	9,363	14,890	6.98
2005	220,246	6,972	12,514	19,486	9.72
2007	229,449	6,724	13,890	21,314	10.58

<표 1>에 나와 있듯이 강릉시 인구 229,876명 가운데 남성은 49.9퍼센트인 114,735명이며, 여성은 50.1퍼센트인 115,141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1,314명으로 9.78퍼센트에 해당한다.¹²⁴⁾ 한편 그간의 변화과정에서 노인인구 가운데 여

118) 제 51호 강릉객사문.

119) 제 388호 강릉임영관지, 제 44호 강릉굴산사지.

120) 제 1호 명주청학동의 소금강.

121) 제 5호 강릉선교장.

122) 2005년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123) 남대문을 복구할 때 강릉 소나무인 금강(金剛)송으로 사용키로 했다.

124) 이 같은 추세는 한 동안 낮아졌다가 노인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다.

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970년 총 노인인구 10,965명 가운데 여성 노인은 54.9퍼센트의 6,021명으로 남성 노인보다 조금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 이르러서는 총 노인 인구 21,314명 가운데 여성 노인은 65.8퍼센트의 13,890명으로 1970년의 비율보다는 3.88퍼센트¹²⁵⁾ 높아졌으며, 이로써 남성 노인보다는 27.6퍼센트¹²⁶⁾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¹²⁵⁾ 이를 전국의 상황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성별, 연령별급 구성(단위: 명, 퍼센트)¹²⁶⁾

총인구		남		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총계	46,429,817	23,396,437	50.4	23,033,380	49.6
65-69세	1,220,792	511,383	41.9	709,409	58.1
70-74세	838,044	320,688	38.3	517,356	61.7
75-79세	551,525	196,636	35.7	354,889	64.3
80세 이상	440,276	120,673	27.4	319,603	72.6
소계	3,050,637	1,149,380	37.7	1,901,257	62.3

또한 전국의 총인구 가운데 남성 대 여성 비율은 50.4:49.6으로 강릉의 49.9:50.1과 비교하여 강릉이 여성비율이 전국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이 9.89퍼센트로서 강릉의 10.58퍼센트로서 0.69퍼센트 높으며 강릉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더욱 노령화 되어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0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6배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이다. 강릉에서는 65세 이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76배 높아, 전국의 1.65배 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가운데서 생활보호법 제3조¹²⁷⁾에 해당하는

125) 강릉시의 행정단위인 동, 읍, 면별 노인인구 현황은 부표-1 참조

126) 자료는 통계청 KOSIS 서비스에서 정리

127) 생활보호법 제 3조(보호대상자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한다. 1999년 생보자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이 23만원(1인당) 이하, 재산은 2900만원(1가구당) 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형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도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릉시의 노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761명으로 전체 노인의 8.9퍼센트에 해당하며, 강원도 전체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9.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이 398명, 여성이 1,363명으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남성의 3배에 이른다. 또한 강릉시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퍼센트로 전체의 비율보다 낮은 데 비해 여성은 9.4퍼센트로 전체의 비율보다 높다.

<표 3>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현황(단위: 명, 퍼센트)¹²⁸⁾

구분	노인 인구수 (2007년 12월말)			노인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강원도	167,560	70,769	96,791	15,124	20,599	6,579	14,020	7,700	8,774	2,071	7,603
강릉	23,314	7,724	15,890	1,714	1,674	451	1,223	744	904	227	677
비율	13.9	10.9	16.4	11.3	8.2	6.8	8.7	9.7	10.3	10.9	8.9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독거노인이 강릉시에는 904명이 있어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의 5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비율이며, 강원도에서는 1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강릉시 노인 생활보호대상자의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율인 8.2퍼센트보다도 높은 수치여서 실정이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높아 3.5배를 보이고 있다.

평생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을 겨우 초과하는 사람과 소득이 겨우 23만원을 초과하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소득은 23만원에 재산이 2900만원인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보다 못한 가구가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났다.

128) 강릉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여성과 자료.

2. 강릉시 노인복지 실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3,314명이 넘는 강릉시의 노인인구에 대하여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거택보호대상자, 노인 자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어떤 복지시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복지는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노인복지와 비제도적 노인복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적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의료보험, 조세감면, 무료급식, 틀니시술, 독거노인 보호시설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주택법에 근거하여 경로당이 확보되고 운영되어 제공하고 있다.¹²⁹⁾

(1) 노인교통수당: 전체 노인 대상(노인복지법)

노인교통수당이란 노인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13,200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강릉시에서는 노인법에 의해 연 21,186명에게 19억 7788만 3천원을 집행하였다. 곧 노인 1인당 승차권 12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3,200원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2) 경로연금¹³⁰⁾: 노인 중 일부(노인복지법)

경로연금이란 저소득 노인¹³¹⁾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본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받는 점에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과 다르다.

강릉시에서는 경로연금을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겐 월 5만원씩, 65세-80세 미만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겐 월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들

129) 기독교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저, *기독교백과사전*, 제 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130) 경로연금 근거: 노인복지법 제9-22조.

131)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에겐 월3만원씩을 통장에 자동 지급되고 있다.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 그중 1인만 월 22,500원을 받고 있다. 경로연금 수급노인에게 월 42,000원이 지급된다.

(3) 의료보험 및 건강진단: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의료보험이란 노인이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란 1978년까지는 생활보호법의 급여조항이었으나,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을 1호,¹³²⁾ 2호,¹³³⁾ 의료부조¹³⁴⁾로 구분하여, 치료비용의 부담은 1호에 대해서는 무료, 2호 및 3호에 대해서는 진료의 종류(외래 및 입원)와 지역에 따라 무료 또는 차등적으로 정부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8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건강진단 희망자¹³⁵⁾와 시, 군, 구의 단체장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노인에게 시급한 치과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의료 보험 혜택을 거의 못 받다 보니 소득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독거노인과 같이 소득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 혜택을 받기 상당히 어렵다.

강릉시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¹³⁶⁾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227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429만 5680원이었다. 진단결과 고혈압성 질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장질환으로 나타났다.

(4) 조세감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생활보호법)

조세감면이란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¹³⁷⁾에게는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마다 감면이나 혜택 보는 면이 서로 다르다.

132)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이재민 및 성병감염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소득한계 이하의 자.

133) 자활보호대상자.

134)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한계보다 약간 높은 소득수준 이상의 자.

135) 희망자 중 저소득층 노인들이 우선임.

136)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법을 근거로 실시하였다. 지원기준은 1종은 국가부담에서 100퍼센트 부담하고, 2종은 국가부담 80퍼센트였다.

137) 생활보호 사업지침.

강릉시에서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에게 TV 수신료 면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신설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1인 1통장에 한해서 2천만 원까지 비과세저축을 신설했다.¹³⁸⁾

(5) 무료급식: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생활보호법)

무료급식은 오래 전부터 먼저 복지관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먼저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의탁노인과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먼저 제공하는 곳은 기관에 입소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이고, 대부분 자기 주거지에서 생활보호법에 따라 무료급식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사회봉사를 통해서나 NGO단체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법으로 부양이 가능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에도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겐 사각지대가 아닐 수가 없다.

강릉시에서는 <표 4>와 같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170여 명에게 매일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문진 작은 썸터회에서 지역 불우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정작 무료급식은 강릉 시내 4개 교회¹³⁹⁾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표 4 > 노인 무료급식소¹⁴⁰⁾

구분	이용대상	이용인원/1일	시청 지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릉시 거주 65세 이상 불우노인	170명	밑반찬
주문진 작은썸터회		120명	밑반찬
2개소		290명	

(6) 틈니시슬: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생활보호법)

노인 3명당 2명꼴 '틈니'가 필요하다는 보고¹⁴¹⁾가 있다. 65-74세 노인 중 80퍼센

138) 비과세저축은 강릉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제도였다.

139) 강릉중앙감리교회, 강릉성결교회, 강릉소망교회, 강릉노암교회.

140) 강릉시청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여성과 자료.

141)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회).

트 이상이 잇몸병을 앓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0퍼센트가 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장착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고¹⁴²⁾는 더 열악하다.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평균 치아 수는 9.69개. 그 중 21퍼센트는 아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럼에도 '노인틀니의 의료보험화'는 아직도 요원하다.¹⁴³⁾

강릉시에서는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75명에 대하여 1인당 80만원씩을 지원 총 6천만 원을 지원하여 틀니시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7) 독거노인 보호시설: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생활보호법)

독거노인이라고 전부 보호시설에 입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수급자는 의료비1종,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1종은 국가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 2종은 국가부담에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 내는 경우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가 노인¹⁴⁴⁾이 되어 증병이 있으면 무료요양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노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371명으로 전체 노인의 7.5퍼센트에 해당하며, 강원도 전체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이 345명, 여성이 1,026명으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다. 또한 강릉시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퍼센트로 전체의 비율보다 낮는데 비해 여성은 8.5퍼센트로 전체의 비율보다 높다.

14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고서.

143) 틀니보험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노인복지 관련 대통령 공약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김영삼 정부 때는 입법안 마련에 여론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간헐적으로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독거노인, 생활보호시설 수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무료틀니 사업 정도다.

144) 주택혜택, 교육혜택, 자동차 살 때 할인, 핸드폰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TV) 등이 있다.

<표 5>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현황(단위: 명, 퍼센트)

구분	노인 인구수 (2006년 12월말)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			
	계	남	여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강원도	133,560	50,769	82,791	13,124	17,599	5,579	12,020	7,700	8,574	1,971	6,603
강릉	18,290	6,591	11,699	1,414	1,371	345	1,026	744	804	177	627
비율	13.7	13.0	14.1	10.8	7.8	6.2	8.5	9.7	9.4	9.0	9.5

한편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자들을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릉시의 노인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연령급별과 성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강릉시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1,371명 가운데 거택보호대상자는 674명으로 49.2퍼센트를 차지하며, 자활보호대상자는 535명으로 39퍼센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령급별로 보면 모두 70세 미만보다 70세 이상이 많으며, 70세 이상이 70세 미만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 여 성별로도 고령화할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는 점과 고령화 되어가며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여 바람직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경로당: 전체 노인 대상(주택법)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인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0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7퍼센트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런 추세라면 2014년께는 노인인구 비율이 14퍼센트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이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준비될 필요¹⁴⁵⁾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중 약 60퍼센트

145) 200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 활용계획에 대해 응답 노인의 33퍼센트가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대답했고, 29.5퍼센트가 '취미활동', 15퍼센트가 '자원봉사활동', 9.3퍼센트가 '종교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무방비 상태다. 이제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활동 유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취미·자원봉사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만만치 않다는 조사결과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여가복지시설은 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이다. 경로당은 오락프로그램, 노래교실, 장기·바둑 등의 익숙하고 다소 단조로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반면, 노인복지회관은 경로 노인들의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지원, 건강 증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¹⁴⁶⁾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산하에는 260여 개의 경로당과 4개의 노인대학이 있으며, 강릉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올해 노인회관에 대한 재건축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각 경로당은 운영비로 월 240,000원을 지원¹⁴⁷⁾받고, 난방비로 년 850,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나. 비제도적 노인복지

(1) 노인복지 기금

강원도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7년 12월말 기준 41억 원을 조성하였고, 기금 이식금으로 '99년부터 2006년 말까지 802백만 원¹⁴⁸⁾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20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강릉시에서도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노인복지기금 9억 원 조성을 완료하고 기금 이식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46) 정부는 그동안 엄격한 시설기준과 지방재정 부족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갖춘 시군구가 전체 260개 지역 중 80여개에 불과한 것과 관련, 2008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최소 한곳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147) 노인복지법 37호 근거.

148) 126개 단체 160개 사업에 지원.

<표 6> 노인복지기금(단위: 천원)¹⁴⁹⁾

조성목표	조성기간	조성금액		
		원 금	이자발생액	총 액
10,000,000(시비출연금)	1996-2000(5개년)	700,000	185,935	885,935
15,000,000(시비출연금)	2001-2006(5개년)	1,250,000	287,875	1,537,875

* 근거: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집*¹⁵⁰⁾

(2) 노인복지 시설 위문

강릉시에도 이제 전문노인복지 시설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는 평안의 집과 효도마을은 대외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위로와 함께 실습도 하고 있다.

<표 7> 노인복지시설 위문¹⁵¹⁾

구분	평안의 집	효도마을
시설종별	무료양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위치	유산동	강동면
부지면적	1,942평	2,307평
건물면적	641평(지하1층, 지상3층)	488평(지하1층, 지상3층)
종사자	6명	17명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강릉중앙재단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
정원	50명	65명
현원	46명	52명

(3) 노인의 날 행사¹⁵²⁾

강릉시의회는 17일 제19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무성 의원 등이 발의

149) 강릉시청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여성과 자료.

150) *자치법규집*제 2권, 1373-1377.

151) 강릉시청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여성과 자료.

15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1조.

한 ‘강릉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¹⁵³⁾ 더불어 노인의 날에 기념식과 함께 모범노인 표창, 모범노인 단체 표창, 민간인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공무원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복지기여자 표창을 한다. 이 때 보통 1천여 명이 참석하여 노인들의 기예대회를 개최하고, 노인 게이트볼도 함께 개최한다. 특히 경로잔치에서는 강릉YWCA가 마련한 푸짐한 음식과 함께 무용 스포츠댄스와 노래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4) 장수노인 국제교류

강릉시에서는 고령자들에게 매 해 강원도 자매지역인 일본 닛토리 현과 교차 방문 교류하는 행사를 19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부정기적 행사지만, 강원도 자체행사로 5년 단위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심사하여 교육 후 상호 교류케 한다. 일본에서도 강릉시에 두 번 방문¹⁵⁴⁾하여 상호 문화를 교류하였다.

(5) 노인학교 운영

노인복지법 제20조 제 3항에 보면,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강릉시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년 5,500천원을 노인학교에 지원한다.¹⁵⁵⁾

(6) 치매노인¹⁵⁶⁾

강릉시에서는 ‘치매상담신고센터’를 강릉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자는 간호사 1명이다. 치매전문요양시설은 강릉효도마을(강동면)을 운영하고 있고, 상태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판단하여 보고 후 입소토록 한다.

153)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조례안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에게 설날이나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급식,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4) 1997년 7월과 2005년 7월 두 차례 상호 방문.

155)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737호 일부개정 2000. 02. 28.)

15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2조.

(7) 노인공동작업장

강릉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¹⁵⁷⁾ 시에서는 폐 현수막 수거를 통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제작 사업, 20개 경로당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일거리 창출, 교통질서 캠페인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수행하는 노인 지역봉사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 연장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표 8>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단위: 개소, 천원)¹⁵⁸⁾

구분	작업유형	작업장	직업인원			수입금액	기금조성액
			남	여	계		
내용	농산물 수확	14	210	60	270	35,210	21,000
	수산물 가공	3	23	35	58	10,135	7,400
계	2개	17	233	95	328	45,345	28,400

3. 강릉시의 노인복지 시설

강릉시의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 3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릉시의 공간적 규모나 인구규모 그리고 노인인구의 규모로 보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기에 현 여건으로 보아 불가능하다. 다행히 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 각 항목별로 하나씩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세부복지시설 항목 18종 가운데 5종만이 있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릉시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 공동작업장(경로당 연계 17개소), 경로당(165개소), 노인의 집(강원도 시책사업3개소)¹⁵⁹⁾가 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하지만 아직도 없는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취업알선센터, 보건복지센터, 독거노인 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157) 이번 평가는 2007년 노인 일자리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의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사항 도출과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58) 강릉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여성과 자료.

159) 생활능력이 있는 노인.

4. 강릉시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가. 강릉시 노인복지의 문제점

앞에서의 실태들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별문제 없이 각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강릉시 노인복지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책개발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하에서 지역적 특색을 지니는 자체정책이 필요하나 미흡한 상태이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도의 시책들을 그대로 받아 수행하고 집행하는 기능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복잡하며 서로 얽혀 있다. 셋째는 노인들의 생활에 아주 적합한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적 환경을 노인복지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 방안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는 아직 빈곤층인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노인복지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¹⁶⁰⁾

<표 9>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제시된 노인복지시설과 강릉의 실태

구분	세부복지시설	강릉시 운영시설명칭	기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강릉 평안의 집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실비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강릉 효도마을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160) 대다수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예산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경로당	165개소 (지역, 아파트별)	
	노인교실		
	노인휴게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갈바리의원	
	주간보호시설	강릉노암복지회	
	단기보호시설		
계		6종	

나. 강릉시 노인복지의 발전 방안

첫째로 지방정부의 지역적인 사회보장 발전 목표의 설정과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개발과 중장기,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¹⁶¹⁾ 둘째로 노인복지의 내용을 선진국의 경우처럼 주제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⁶²⁾ 셋째는 지금까지의 노인복지는 어려운 노인층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 전반적인 노인복지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¹⁶³⁾ 넷째는 보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¹⁶⁴⁾ 다섯째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특히 대기업이나 실버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¹⁶⁵⁾ 여섯째는 이와 병행하여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¹⁶⁶⁾과 각 지역의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들과 연계시켜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효’ 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꾀 나가도록 한다.

161) 지금까지도 어려운 재정과 인력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온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162) 이만식,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코 통계분석* (미간행출판물, 2005).

163) 노인층에서 여유층, 중간층,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목표와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164) 강릉시의 산 바다가 있어 노인층에 좋은 음식물이 풍부하고, 환경의 쾌적성이 높아 노후생활에 적합한 도시다. 이러한 강릉시의 장점을 중앙정부에 홍보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대단지 노인복지단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165) 노치준, “희년과 한국교회의 재정 및 사회봉사,” *기독교 사회복지* (1998), 34.

166) 교육계, 종교계, 금융계, 의료계 등.

이상 ‘강릉시 소개 및 노인복지 현황’을 요약하면 강릉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여성비율이 전국보다 높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강릉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타 도시에 비해 더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뒷받침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릉시 4개 교회는 대체로 모범적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고 있는데, 제2절에서는 가장 먼저 강릉노암교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먼저 강릉시 노인복지 현황을 통해 강릉시는 타 도시에 비해 노인들이 더 열악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한계적인 예산 속에 어려움이 많은데, 강릉시 4개 교회 중 먼저 강릉노암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살펴봄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이 잡고자 한다.

강릉노암교회가 개척할 당시 교회 인근 지역은 다리 하나 사이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이 갈라지듯이, 시내에 인접해 있음에도 소외된 지역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역적 배경(신 15:11; 롬 12:15)에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 오늘날 노암교회 복지사역의 태동이라 할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후원을 시작으로 독거노인재가방문, 무료급식 등 지역주민들을 섬기면서 ‘노암복지회’가 법인으로 등록되고, 더불어 노인복지에 날개를 단 듯 강릉노인복지센터와 소규모 요양원인 ‘행복마을’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노인복지를 하게 된 셈이다. 본 2절에서는 노암교회의 이러한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평가하려고 한다.

1.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연혁

강릉노암교회는 1983년 9월 4일 교회를 창립하면서부터 구제부를 두고 지역의 빈곤가정을 지원하면서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독거노인재가방문은 노암교회가 강릉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10여년을 노인복지에 헌신하다가 드디어 2004년 9월 4일에 비영리민간단체 인가 ‘노암복지회’가 강원도 사회복지에 정식 등록하게 이른다. 1년 뒤 2005년 5월 13일에 ‘강릉노인주간보호센터’¹⁶⁷⁾가 개설하

게 되었다. 이것이 현 '강릉노인복지센터'가 된 것이다.

본격적인 노인복지는 2007년 7월 16일에 '행복마을'이 설치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것은 소규모요양시설로 유료와 무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강릉노암교회는 현재 크게 '노암복지회'와 '강릉노인복지센터'라는 두 가지 축으로 노인복지를 감당하고 있다.

2.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사역

강릉시 노인복지 영역에서 강릉노암교회는 명백하게 한 부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오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이다. 충북 음성에서는 버려진 노인들을 사람들은 '꽃동네'에 데려다 주듯이, 강릉시에서도 독거노인이나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강릉노암복지회에 연락할 정도가 되었다.

가. 노암 복지회

(1) 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실천해 왔지만, 이제 노암복지회에서 사업의 하나로 팀을 짜서 주 2회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집을 방문하여, 빨래와 반찬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신 봉사하고 있다.

(2) 무료급식

무료급식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식사 해결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친구끼리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80명에서 100여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남대천 버드나무 쉼터에서 실시하다가 지금은 교회에서 식당을 더 크게 리모델링하여 교회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하고 있다.

(3) 보육원예배

관내 보육원에 주 1회씩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현장학습지도 전달교육도 물론 함께 진행하고 있다.

167) 소속된 총회 노회인 '강원동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설치를 허가받았다.

(4) 행복한 나눔¹⁶⁸⁾

이것은 '기아대책' 지역가게인데, 기증한 물품이나 재고품을 싼 가격에 팔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다가 2007년 노암복지관공사로 장소를 잃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5)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노동부)

2005년 '주간보호센터'운영을 위해 10여명이 시작하다가 나중에 확대되어 20여명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수입을 내어 노인복지를 사용해오고 있다. 재가간병, 산모도우미, 영유아돌보기 등 가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

(6) 노인 일자리 창출(강릉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부 사업이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은 강릉시 사업이다. 이것도 30여명이 유경과 협력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7) 도시락배달

도시락 배달은 강릉시가 위탁한 일로서 매일 80여명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SK'와 협력하여 시설비나 차량 등 운영비까지도 받기로 했지만, 나중에 받지 못하고 현재는 100퍼센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8) OK베이비시터

이 사업도 강릉시가 위탁한 일이다. 2007년 8월경에 강릉시 담당부서에서 위탁할 곳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중 '노암복지회'에서 영유아사업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시에서 연락이 와 OK베이비시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베이비97명을 돌보았는데, 지역보육협회 반대로 이 사업도 중단하게 되었다.

168) '행복한나눔'은 2005년 2월 창립총회를 열어 재단법인으로 법인을 신설 3월에는 행정자치부로 재단법인 인가를 얻었다. 이어서 4월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얻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9) 협력사업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노암복지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일은,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이 되었고, 또한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자 사회봉사활동 인증기관이 되었으며, 더불어 노동부 실업 급여자 구직활동 인증센터 등이 있다.

나. 강릉노인복지센터

강릉노인복지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인 치매¹⁶⁹⁾나 중풍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¹⁷⁰⁾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주간에 제공해 드리고 있다.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8명이 이용하고 계신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요즘, 치매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가족들도 늘고 있고, 치매에 대한 불안에 떠는 중년들도 많다. 치매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이 병은 가정에서 치료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러한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가족들은 잠시나마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노인들도 포레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생각 이상으로 빨리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비용인데 재원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대상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건강보호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부담하게 된다.¹⁷¹⁾

다. '행복마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행복마을'¹⁷²⁾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에 잠시 돌보는 것을 확대하여 준 병원처럼 요양하는 시설이다. 이곳에 입소하는 노인은 3가지 타입이 있다. 곧 입소보호와 주간보호 그리고 방문요양이 있다.

169)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의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지적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70) 장기요양등급 103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17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172) 강릉시 지원으로 리모델링하여 '행복마을'을 시작하고 있다.

(1) 입소보호

입소보호는 행복마을에 직접 입소하여 보호하는 형태다. 이곳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주야 24시간 같이 생활하며 보살펴드리는 일이다. 항간에 치매나 중풍 환자가 있는 10가구 중 9가구는 가족 내 불화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성을 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보다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현재 노암교회 ‘행복마을’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14명이 이용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시설이 많아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주간보호

주간보호는 말 그대로 학생처럼 주간에 와서 이용하는 형태다. 물론 이 곳도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주간에 보살펴드리는 일이다. 정원은 10명인데 8명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3) 방문요양¹⁷³⁾

금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173)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일찍 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몇 년 전 우리 여건에 맞는 고령화 대책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완성하고 관련법률 등을 제정했으며 부처별로 해당 세부 과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새로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 제도로써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효의 세대간 품앗이’로 표현되는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강릉노암교회 ‘행복마을’에서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원 80명에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4) 협력사업

강릉노암교회는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기관¹⁷⁴⁾ 지정되었고, 영동대 및 각 대학 사회복지사 실습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강릉요양보호사 실습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20여 기관, 단체와 후원 자원봉사 협력 중이다.

3.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평가

노암교회 노인복지의 특징은 ‘노인대학’같은 단순히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노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해 주고 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인들의 4고라는 가난, 질병, 무위, 고독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입소하여 보호하는 측면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시설 안에서 규율을 지켜야 하므로 소외감과 부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¹⁷⁵⁾ 하지만 노암교회가 주최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의 입소보호는 이러한 시설 중심의 입소에 따른 문제점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노암복지회가 일반 복지단체와 다른 점은 이곳은 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에 운영목적이나 방법 등이 기독교정신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성 질환을 앓아왔던 노인들이 ‘행복마을’에 입소하여 상당한 속도로 호전되는 사례가 이미 여러 건이 있었다. 오히려 입소하길 원하지만 여러 여건이 맞질 않아 입소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주간보호시설을 통한 영향력이다. 수명의 연장, 고령인구 증가, 기능장애 노인 증가,¹⁷⁶⁾ 가정 부양기능 약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174) 강릉은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175) 또한 시설 안에서의 집단생활은 개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수용된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을 어딘가에 보내야할 형편에 처한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예 입소하여 24시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낮 동안이라도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주간보호 사업은 교회에서 하기 전에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에, 노암교회처럼 유사한 기관에서 이런 일을 대행한다는 것은 평가 이전에 지역에서도 환영해야 할 일이고, 다른 교회에서도 본받아 많은 곳에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독거노인 방문요양이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사회복지사가 함께 지역사회에 병든 노인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식단 차리기, 쇼핑, 세탁, 집안청소, 가구이동 등의 가사 일을 도와주는 일은 물론이고, 기초 건강진단¹⁷⁶⁾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시 인근 의료기관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안내하여 주므로 쇠약한 노인들에게 심적이고 육적 안정을 얻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직접적인 사랑을 실천하므로 체험되므로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선교의 장이 되고 있다. 훈련받은 봉사자들이 노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필요는 물론이지만 더불어 영적인 필요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선교도 없을 것이다. 노암교회는 교회 개척 초기부터 이러한 일을 해왔다. 이제 불신자 사이에서도 그들의 수고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넷째로 무료급식을 통한 돌봄이다. 노암교회 노암복지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5년 전부터 무료 노인급식집을 개설하여 주4회 급식을 시작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의탁 노인들에게 규칙적으로 무료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생활 제공으로 체력유지와 건강증진을

176)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은 137만 명(전체노인의 52.9퍼센트)이 넘었고, 그 중에서 ADL이나 IADL의 기능제한으로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인구수는 123만 명(46.3퍼센트)이고, ADL 기능 모두 제한을 갖고 있어 수발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허약한 노인 즉 시설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은 거의 15만 명에 이르고 시설보호 대상노인도 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77) 체온측정, 혈압측정, 혈당측정 등 기초적인 건강진단.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복지회 사업을 이해하고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며 노인들의 즐거운 증식시간을 통해 삶에 의욕과 친교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대상노인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노약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¹⁷⁸⁾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전쟁 중이다. 모든 지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이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10년 전의 IMF구제금융 사태를 떠올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는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실업증가에 따라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¹⁷⁹⁾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같이 거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거나 틈새 고용시장을 찾아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노암교회 사회복지를 통한 50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일 자체는 노인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만, 결과는 그 일로 인해 여러 가정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노암교회는 노인복지를 하므로 부수적으로 공장 하나 운영하듯,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상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를 요약해 보면, 가장 특징적인 노인복지 사역은 역시 소규모 요양시설에 있는데, 주간 보호와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두 가지가 있다. 또한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요양의 단계까지 섬기는 사역과 무료급식을 통한 돌봄의 사역이 있다. 노암교회는 이렇게 양로원같이 입소하여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의 질병까지 돌보는 요양원 사역이 중심인데 이 일을 통해 일자리창출이라는 부수적인 보너스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고 있다.

178) 노암교회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 식당을 더 넓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79) 특히 청년 실업률은 7.8퍼센트나 되고 있고 실업자 수는 27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제 3 절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우리는 먼저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요양시설이라는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 사역은 크게 무료 양로원 시설과 무료 급식 두 가지가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그러한 노인복지 일들이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연혁

강릉중앙감리교회는 1901년도에 설립된 영동지역 최고의 교회다.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지만 먼저 민족과 함께 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대 담임목사이셨던 안경록 목사를 중심으로 3·1만세 운동을 일으켰으며, IMF로 인한 고난 극복을 위하여 금 모으기 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또 이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릉지역 결식자를 위한 샬롬 센터, 의료 선교회, 사회복지재단인 성은모자원과 무료 양로원인 '평안의 집' 등을 통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는 교훈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하고자 1992년 7월에 사회복지법인 강릉중앙재단 설립인가를 받고, 그 해 7월에 강릉중앙재단과 성은모자원¹⁸⁰⁾ 두 법인이 합병했다. 1년 뒤 1993년 10월에 노인복지 시설 설립에 대한 인가가나, 1994년 3월에 건물을 기공하고, 1994년에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로서 무료 양로원인 '평안의 집'과 모자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거노인과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샬롬 센터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릉시 지역에 사랑의 도시락도 전달하고 있다. 중앙감리교회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역¹⁸¹⁾을 하고 있다.

180) 성은모자원: '평안의 집'과 함께 있는 '성은모자원'은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의 사유로 정신적, 심적, 생활적 어려움을 당한 모자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 설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입소기간은 3년이며,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생활할 수 있다.

181) 강릉병원에 원목실을 개설하여 도서봉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 주일 및 수요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해마다 불우한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20명 이상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40명의 교우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2.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사역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 사역은 노인성질환인 치매나 중풍 등으로 홀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사역은 독거노인이나 자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거주하여 생활하는 양로원(養老院)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평안의 집

(1) 설립목적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와 고령화로 인한 무의탁 노인들의 증가로 심각해진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로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통해 수용노인들의 생활전반을 돌보며 신앙생활 등을 통해 평안한 노후를 지내도록 한다.

(2) 시설연혁과 건물현황

1993년 10월 23일에 유산동 518-2번지에 노인복지시설로 설립인가(강원도지사)를 받고, 1994년 3월 12일에 건물을 기공한 후, 1995년 12월 26일에 건물을 준공하여, 1996년 5월 24일에 개원하게 되었다.

<표 10> 평안의 집 건물 현황(단위: 제곱미터)

총부지	건물 현황					
	계	지하층	1층	2층	3층	경비실
6,420.6	2,120.81	339.2	640.1	693.71	429.84	18.05
		기계실, 세탁실, 체력단련 실, 부속실	사무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 휴게실, 강당	생활관, 목욕탕, 휴게실, 식당	관리실, 직원숙소	

(3) 프로그램

평안의 집 양로원 프로그램은 어느 단체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조직적

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목욕, 물리치료, 산책, 운동 등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반별행사, 한글교실, 노래방, 손공예,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고,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종교행사가 있다.

<표 11> 주간 프로그램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입욕	물리치료	입욕	강릉구경	입욕	산책
	중앙감리교회	영동대학교	직원	반별행사	직원	호우회
오후	한글교실	종교행사	종교행사	종교행사	종교행사	무료방문진료 의료선교회 강릉중앙감리교회
	자원봉사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어리미노래방	작은 모임	손공예	치료 레크리에이션	운동과 게임	
	자원봉사	반 별	직 원	생활체육협회의	직 원	

<표 12> 월간·연간·명절프로그램

월간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명절프로그램
생일잔치	효도여행	설날잔치
요리 또는 야외식사	체육행사	어버이날 행사
이, 미용	물놀이(야유회)	대보름 민속놀이
삼겹살의 날	가을여행	노인의 날 행사
레크리에이션	성탄의 밤(자원봉사초청의 밤)	한가위잔치

(4) 직원 및 생활인 현황(2006년 6월 기준)

직원은 11명으로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간호사 1명, 생활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4명 그리고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이 있다. 입소한 노인의 현황은 남자 11명¹⁸²⁾과 여자는 34명¹⁸³⁾이다.

나. 살롬센터

강릉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하는 곳이 4군데가 있다. 하나는 노암교회 노암복지회에서 노암교회 식당에서 제공하고, 다음으론 강릉중앙감리교회 살롬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교회 식당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릉소망장로교회에서 매주 4회 교회 식당에서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강릉백석장로교회에서 매주 2회씩 공원에서 1회 100여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강릉장로교회에서도 노인대학을 하면서 무료로 식사는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강릉중앙감리교회 살롬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 노인들과 불우한 이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고, 각 과별로 무료 진료를 해 주고 그리고 이, 미용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제 강릉에 사는 독거노인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1주일 내내 교회를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노인대학도 다니면서 유익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노인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생에 큰 소망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 사랑의 도시락

강릉노암교회에서도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는데,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날마다 100여 개 이상씩 강릉시 지역에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개중에는 교회에서 전해주는 도시락을 받지 않고는 식사도 거를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3.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복지 평가

강릉중앙감리교회는 영동지역의 모 교회답게 여러 대상으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노암교회 노암복지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주간이나 24시간을 보호하는 서비스(요양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한다면, 강릉중앙감리교회는 항시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무료양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

182) 66-70세(4명), 71-75세(1명), 76-80세(4명), 81-85세(2명).

183) 60-65세(1명), 66-70세(5명), 71-75세(1명), 76-80세(4명), 81-85세(9명), 86-90세(12명), 91세 이상(2명).

다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작지만 의미가 크다. 양로원¹⁸⁴⁾은 병이 들지 않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고, 주야간 보호센터인 요양원¹⁸⁵⁾은 병이 들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노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기에, 중양감리교회의 무료양로원¹⁸⁶⁾인 ‘평안의 집’ 사역은 환경상, 경제적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훌륭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을 통한 섬김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역을 통한 정기적으로 노인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러한 만남을 통해 이들의 건강과 영적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선교(宣敎)란 직접적인 전도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렇게 조건 없이 어르신들을 품을 때 주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상 강릉중양감리교회 노인사역을 요약해 보면,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열악한 가정의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무료양로원인 ‘평안의 집’이 있고, 또한 무료급식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만나면서 자식처럼 어르신들을 섬기는 두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 4 절 강릉장로교회 노인복지

우리는 먼저 강릉시 노인복지를 알아보면서 한계적인 노인복지 돌파구로서 강릉시 4개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강릉노암교회와 강릉중양감리교회 노인복지를 소개했고, 이번에는 강릉장로교회를 고찰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비중을 알고자 한다.

1.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 연혁

강릉교회는 강릉시 장로교회 중에는 가장 큰 교회였는데, 새로 교회를 건축 한 후

184) 노인복지법 제 32조.

185) 노인복지법 제 34조.

186)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 단독가구가 42.3퍼센트에 달한다. 이 수치는 15년 전만해도 23.2퍼센트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포 쪽으로 이사한 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강릉시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되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의 노인복지는 노암교회의 요양원 사역과 중앙감리교회의 무료 양로원 사역과는 다르게 ‘노인대학’을 통해 노인들의 노후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색깔이 분명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다. 80년대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잘해도 되었고, 90년대에는 찬양예배만 잘해도 되었고, 지금은 지역사회에 파고 드는 노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으므로, 노인대학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본 4절에는 강릉장로교회가 노인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려고 한다.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¹⁸⁷⁾은 1999년 3월 4일에 남자 9명과 여자 24명이 처음 제 1기가 개강되었다. 2년 과정이기에 2001년 2월에 제 1기가 수료되면서 1년 마다 새로 입학하고 수료식이 반복되어 지금까지 제 7기가 졸업했다. 대체로 통계로 보면 노인이라 그런지 입학 중 2년 동안 출석 한 후 정상적으로 수료한 노인은 반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약 130 명 노인들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했다.

2.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 학사

가. 교육목적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부터 남은 생애가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나는 과연 죽어 가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곧 평생교육의 의미를 갖는다.

나. 교사의 각오

노인학교의 교사는 일반 학교의 교사와 다른 각오를 갖고 있다. 학생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므로 정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생활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봉사 정신을 갖고 앞장서서 일하며, 성실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며, 섬김의

187) 보통 ‘노인대학’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강릉교회에서는 ‘장수대학’이라고 한다.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노인들이 다니는 학교로 약간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듯하지만, 장수대학하면 마치 그 학교를 다니면 장수하는 듯 희망적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붙인 모양이다.

자세로 항상 낮은 자리에서 헌신봉사하고, 노인 학생들을 대할 때나 대화할 때 반드시 존대 말을 쓰도록 한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며 교육한다.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주 1회 반드시 전화 상담 하도록 한다.

다. 교육계획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이므로 예배라는 종교적 행사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활동시간에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 또 운동시간, 이, 미용을 통해 육신을 돌보고, 현장학습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 다음 (표-13)은 1학기 교육계획서로 매 주마다 각 분야별 과목과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들이 주단위로 세워놓은 교육계획서다.

<표 13> 1학기 교육계획서

월	일	교육 내용	비고
3	8	개강 예배, 입학식, 반편성, 담임인사	생일잔치(1, 2월), 이미용
	15	예배, 회장 반장 선거, 방학생발 발표, 취미 활동반 조직	
	22	예배, 체조	
	29	예배, 체조, 가요부르기, 취미활동	
4	5	예배, 부활절 영상물 보기, 계란 싸기 캐릭터 열린 시간	이미용
	12	예배, 취미활동	
	19	예배	
	26	예배, 취미 활동	
5	3	예배, 헌신 예배 찬양 연습	이미용
	10	예배, 헌신 예배 찬양 연습, 취미활동	
주일	13	장수대학 헌신 예배, 찬양	
	17	예배	
	24	석가탄신일	휴일
	31	봄 소풍, 취미활동	
6	7	예배	이미용
	14	예배, 장수 체조, 찬양, 취미활동	
	21	예배, 발표 연습	
	28	현장 학습, 취미활동	
7	5	예배, 여름방학	생일잔치(7, 8월), 이미용

	* 이미용 하는 날-매월 첫째 주 * 밀알 선교단 예배일-매월 첫째 주	
--	--	--

<표 14> 2학기 교육계획서

월	일	교육 내용	비고
9	6	개강 예배, 방학 생활 발표	생일잔치(8월), 이미용
	13	예배, 찬양, 취미활동	
	20	예배, 취미 활동, 포크댄스	
	27	예배, 장수 체조, 게임, 취미활동	
10	4	예배, 캐릭터	이미용
	11	예배, 취미 활동	
	18	가을 소풍	
	25	예배, 찬양, 댄스, 취미활동	
11	1	예배, 장수 체조, 국악 찬양	이미용
	8	현장 학습(가을 단풍놀이)	
	15	예배, 취미 활동	
	22	예배, 찬양, 무용	
	29	예배, 취미 활동 발표 연습	
12	6	제 7기 수료식, 취미 활동 발표회	생일잔치(12월)
		* 이미용 하는 날--매월 첫째 주 * 밀알 선교단 예배일--매월 첫째 주	

라. 일과시간표

<표 14> 노인대학 일과시간표는 유치원처럼 뽁뽁하면서도, 재미있게 짜여 있다. 대체로 가장먼저 교사기도회를 진행한 후 학생들과 함께 건강체조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후에 각 조별로 취미활동시간을 갖는다.

<표 14> 노인대학 일과시간표

월	일		10-10:30	11-11:20	11:20-12	12-12:30	비고	
3	8	장수대학 등교 및 교사기도회	찬양을 동 및 건강 체조 하 기	1학기 개강식 및 입학식			이미용, 생일잔치 (1, 2월)	
	15			예배 및 새가족 환영	방학생활발표 및 회장, 반장 선거		취미활동 반조직	
	22				취미 활동	합창반 (유년부실)		
						댄스반 (초등부실)		
						한글반 (새가족실)		
장기 바둑반(2층 찬양대실)								
29	장수체조, 캐릭터			열린시간(1반)				
4	5			부활절영상물보기		열린시간(2반)	이미용	
	12			가요 부르기		계란 싸기		
	19			현장 학습(경포호수 걷기)				
	26							
5	3			취미활동반 가기				
	10			사탕부케 만들기		이미용		
				세대간 어울림(씨리얼 먹기)				
		헌신예배찬양연습	댄스(텍사스룸바)					
	13	장수대학 헌신예배-가족과 함께 예배, 찬양하기						
	17			취미활동반 가기				
	24							
31	봄소풍							
6	7			국악, 민요 부르기	실버휘트니스	이미용		
	14			장수 체조	가요			

					부르기	
	21				취미활동반 가기	
	28				현장 학습	
					게임, 취미활동 발표 연습	
7	5				취미활동반 발표회, 여름 방학	생일잔치 (7월)

마. 담당자

<표 15>는 노인대학 활동제목과 활동내용, 노인들의 취미반을 부서별로 구분했고 그리고 노인대학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함께 적어놓았다.

<표 15> 노인대학 담당자

부서		활동 제목		활동 내용	담당교사
예배		예배, 기획 각종 행사 준비 차량 및 사전 준비		경건회 및 말씀 강론 새가족 환영 및 소개 소풍 및 현장학습 입학식 , 수료식 준비	이운철 목사님, 이성채 학감, 정미경 총무, 장말임 교무
찬양활동		찬양과 율동하기 국악, 민요 부르기 가요 부르기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기 국악, 민요 부르기 건전가요부르기 및 배우기 춤추고 손뼉치며 율동하기 찬송가 몸찬양하기	팀장: 홍정림, 최종숙, 김정은, 안옥자, 박희정, 이미형
장수체조		장수체조		세라밴드운동, 맨손체조, 건강체조, 5초운동 평생 건강하게 사는 비법	팀장: 이양춘, 김기동, 권순일
취미활동반	합창반	· 찬양하기 · 동요부르기 · 국악부르기	초등부실		팀장: 박희정, 홍정림, 이양춘, 이순희, 홍현자, 장은도, 심지희
	댄스반	· 가요부르기	유년부실	댄스(텍사스룸바, 실버 휘트니스) 에어로빅, 고전 무용, 포크 댄스, 손수건을 이용한 무용	팀장: 안옥자, 장말임, 조유미, 이양춘
	한글반		새가족실		팀장: 송영란, 김용란, 노운주, 최현숙, 심지희

	장 기 바 둑 반		만 남 의 실		팀장: 김기동, 권순일, 유선경
--	-----------------------	--	------------------	--	----------------------

프로그램 담당자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협력하여 인도하고 있다. 대체로 예배에 관한 부분만 목회자가 담당하고, 나머지 특별활동은 실무진이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기적이지만 자체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미용과 의료진료를 봉사하기도 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끝낸 후 교회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끝난다.

3.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 평가

노인교실에 나오는 이유¹⁸⁸⁾를 질문한 결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5.6퍼센트, 다음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경우가 16.7퍼센트로 많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교회의 권유로 참석하는 경우도 16.3퍼센트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무엇인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나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4.4퍼센트와 12.9퍼센트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노인대학을 다닌 후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를 질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34.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신앙이 돈독해졌다’가 18.1퍼센트,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했다’가 16.5퍼센트,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15.0퍼센트로 조사되었다.

모든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다닌 후 새로운 친구와 어울려 좋았고,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강릉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특별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신앙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강릉교회에서는 예배와 성경공부를 정식 프로그램 속에 넣고 진행함으로써 이미 믿고 있는 노인들에겐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았겠지만, 믿지 않는 노인들에겐 적응하기까지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그런지

188) 윤영순, “교회부설 노인대학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1), 34-35.

처음 신청한 노인들이 수료하는 비율은 21 정도로 다소 낮은 수치였다. 그런 점에서 강릉교회 노인대학은 불신자도 자연스럽게 적응되도록 일반 노인학교처럼 문화중심의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노인들에게만 성경이나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다.

이상 강릉장로교회 노인복지를 요약해 보면, 강릉노암교회는 요양원 시설 사역을 하고 강릉중앙감리교회는 무료양로원 시설을 운영하고, 강릉장로교회는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각 교회마다 분명한 특징이 있었다. 강릉장로교회는 어찌 보면 주일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인부 성경공부처럼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노인대학을 운영하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반응이 좋아 참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제 5 절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우리는 강릉시 노인복지 사역을 먼저 비교한 후, 강릉시 4개가 주관하는 노인복지 사역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사업을 살펴보고 특징과 반응 그리고 평가를 통해 다음 장에서 노인복지 활동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1.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연혁

소망교회는 20년 전에 담임목사가 개척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꾸준히 사회복지를 위해 애를 쓰고 모범적인 교회다. 강릉시 4개 교회 중 노인대학 규모도 가장 크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영향력도 대단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 노인들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클럽이 태동되었고, 노인대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료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5절에는 강릉소망교회가 노인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려고 한다.

소망교회는 정식으로 노인대학이 시작하기 전에 1999년 4월에 포남노인회관(목화예식장 뒤)에서 노인들에게 식사와 침 시술, 이미용, 안경제공 등을 제공하면서부터 노인복지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9년 8월부터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1999년 9월 12일에 소망사회복지회¹⁸⁹⁾ 창립총회¹⁹⁰⁾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늘건강소망대학 자치회를 구성하여, 노인자원봉사단을 결성했다. 이 때 부터 현 소망교회 노인대학 전신인 '늘건강소망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다가, 2000년 3월 1일에 늘건강소망대학을 소망노인대학으로 개명하고, 제2대 학장에 송문길 씨가 취임했다. 소망노인대학이 다른 곳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노인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면서 정기적으로 무료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 11월 30일에 제1회 소망노인대학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6회 졸업식이 있었다. 2005년 10월 17일에는 소망노인대학이 사단법인 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 단체사무소로 등록되기도 했다.

2. 강릉소망교회 노인대학 학사

강릉소망교회 노인대학은 일반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인대학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곧 커리큘럼을 짤 때부터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 일반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듯, 예배나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다. 대신에 주일에 모일 때에는 자연스럽게 정식예배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다.

가. 소망노인대학 수업계획안¹⁹¹⁾

<표 16>은 소망노인대학 수업계획안으로 각 강의과목과 강좌내용을 부서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표를 만들었다. 특이한 것은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소망노인대학 시간표(수요일/주일)¹⁹²⁾

소망교회 노인대학 시간표는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189) 본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강릉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190) 이사장: 정길영, 이사: 김상기, 조광희, 강철식(당연직), 송문길(당연직), 감사: 이승정, 회장: 강철식, 총무: 이성준, 부총무: 김종섭, 박문숙, 늘건강소망대학 학장: 정길영, 부학장: 송문길, 교무: 민경란.

191) 2006년 2월 수업계획안.

192) 주일에는 수요일과 시간이 다름. 1주일에 2회 모임.

된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특별활동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한다.

<표 16> 소망노인대학 수업계획서

강의과목	강좌내용
교양강좌	각계 사회 인사 및 대학 교수 초빙
생활영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어 한 마디
노래교실	홀러간 노래, 최신 가요, 민요, 동요, 복음성가
생활체육	누구나 할 수 있는 태권도
생활체조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
학과(8개학과, 12개 전공)	컴퓨터학과, 서예학과, 음악학과, 장기, 바둑학과 -장기전공, 바둑전공 체육학과 -게이트볼전공, 탁구전공, 태권도전공 -스포츠댄스전공 성경학과, 영어학과, 한글학과
개인위생관리 및 건강관리	이발, 미용, 예뻐지는 화장, 뜸, 수지침, 혈압측정, 건강상담, 개인상담.
법률상담	변호사, 대학 교수의 무료 법률 상담
레크리에이션	건강박수 및 체조, 스포츠댄스 개인장기자랑 각종게임
행사	제2회 소망기정탈 강릉지역 게이트볼 대회 졸업여행 및 수학여행 - 청와대 및 기타 지역 노인 경로잔치 및 학예발표회 심장병 무료 검진 (부천 세종병원 심장병 전문의료진) 자연보호 운동, 노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입학식 및 종강식
무료제공	-무료점심은 주 6회 항상 제공합니다. -노인대학 수강료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대학에서 제공합니다. -강릉 전 지역 차량 무료 운행함

<표 17> 소망노인대학 시간표

2006	2007	시간	내용
10:20-10:40		20분	준비교실
10:40-11:20		40/20분	명사/특강
11:20-11:50		30분	교양시간
11:50-12:30		40분	<특활시간>
12:30-13:00		30분	식사시간

다. 소망노인대학 1학기 교과목

소망교회 노인대학 1학기 교과목을 살펴보면, 어느 문화센터 못지않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강사들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질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노인대학으로서 손색이 없다.

3. 강릉소망교회 시니어클럽

강릉소망교회는 사회복지에 개척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독거노인도시락 배달, 무료공부방¹⁹³⁾ 운영, 소망노인대학, ‘강릉시니어클럽’을 태동시켰다. 시니어클럽¹⁹⁴⁾이란 한마디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제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소망교회 소망복지회는 사명을 갖고 매달려 공식적인 단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사업은 한 교회의 영광을 넘어서 모든 노인들에게 소망의 빛을 안겨주었고, 강릉시에서

193) 이것이 발전되어 현재 ‘소망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4)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여가, 문화 복지 외에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써 등장한 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마련, 지역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일정소득의 보장으로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일선 자치단체와 50대 50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 자신들이 할 일을 교회에서 했다고 고마워한다고 한다.

<표 18> 1학기 교과목

과 목	인 원	2006	2007	장 소	비 고
노래교실	170	김병옥 정재연		본당	준비교실 김인영
서예반	20	김순희 최선자		사물놀이방	
공 예	10	박미라 계병진		글방	
컴퓨터	10	김진호 구외석		찬양대	
한글반	10	윤향숙 최은순		새신자실	
수지침	20	고려수지침		영유아방	냄새제거, 불뚱제거
영화감상	40	우수길		미션센터	
포크댄스	20			1층식당	예정
웃음치료	170	정재연		본당	노래교실 중
사물놀이반		임정숙 최선자		사랑방(3층) 청년회의소(예정)	
은빛합창단		조광희			
합계	470				

강릉시는 지난 2008년 3월 29일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4개 기관 48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¹⁹⁵⁾ 노인들의 근무시간은 주 3~4일, 하루 3~4시간 등 월 48시간, 연간 7개월 근무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대체로 그들이 일하는 것은 거리청소 및 교통질서를 전담하는 공익형과 지역문화재 안내 등을 전담하는 교육형,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형, 주유 및 운전원의 인력파견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시장형 등 5개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12일, 강원도로부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강릉시니어클럽은 금년 시 위탁 일자리 사업 외 시장형 등 일자리 100여개를 자체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4개 기관에 대한 기관별 사업수행 현황

195) 또 이를 위해 국비 3억4,257만1000원과 도비 1억277만1000원, 시비 2억3,980만원 등 총사업비 6억8,514만2000원을 투입해 지난해 302명보다 60퍼센트 확대된 484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을 보면, 강릉시니어클럽은 공익형 104명, 교육형 20명, 복지형 40명, 시장형 60명 등 총 224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유경노인복지센터는 공익형 50명, 복지형 100명 등 총 150명의 노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는 공익형 30명, 복지형 30명 등 총 60명이, 강남노인복지센터는 복지형 30명이 참가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소일거리'라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또 이 때문에 보람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역 내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취업알선과 홍보, 사회단체의 아이디어 제공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등 시와 민간, 기업의 삼박자를 잘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강릉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니어클럽은 소망교회의 노인복지를 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면서 이제 체계화되면서, 소망복지회에서 독립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도내 각 기관에는 노인들의 문의전화와 방문상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4.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 평가

강릉장로교회 노인대학은 교회 장년부처럼 교회 제도권 안에서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한다고 말한다면, 소망교회 노인대학은 교회 안에서 진행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일반 복지관에서 진행하듯이, 다양한 내용과 수강생들에게 높은 만족을 주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남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노인학교는 성경과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소망교회는 파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식조차 무시하고, 일반 복지관처럼 운영했음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¹⁹⁶⁾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1주일에 노인학교를 평일과 주일에 한 번 더 실시했던 것이다.

강릉은 유교와 샤머니즘 그리고 불교 터가 센 곳이라 노인들에게 교회 출석을 권

196) 노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먼저 가족들에게 소망교회 출석을 권면했고, 나중에는 노인들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많은 노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자진하여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담임목사와 소망교회 봉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소망교회는 노인학교가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노인정에 찾아가 오랫동안 점심을 대접해 드렸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어르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수고가 노인들에게 좋게 보였는지, 노인학교를 정식으로 열게 되자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최고 많이 참석할 때는 38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다. 23만 시민이 있는 강릉시에서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소망교회는 이렇게 노인학교를 통해 친구가 되었고, ‘강릉시니어클럽’을 통해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정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를 요약해보면, 크게 세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릉소망노인대학을 통해 노후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보내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노인무료 급식을 주 5일이나 하면서 육체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세 번째는 강릉시니어클럽을 통해 노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소망교회 노인대학은 다른 교회와 너무 독특하게 진행하여 강릉시에서는 소문이나 갈수록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무료급식도 알차게 준비하여 강릉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시가 된 강릉시니어 클럽은 강릉소망교회에서 처음 태동이 되어 법인으로 만들어 독립된 상태다.

‘강릉시 4개 교회의 노인복지 활동’을 요약하면 먼저 강릉시 노인복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강릉시는 타 도시에 비해 여성비율과 노인인구, 독거노인이 높음에도 제도적인 뒷받침은 따라주지 못한 가운데,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사역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강릉노암교회 노인복지를 소개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사역은 주간보호와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소규모 요양시설이 있고,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요양의 단계까지 섬기는 사역과 무료급식을 통한 돌봄의 사역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까지 창출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강릉중앙감리교회 노인사역을 소개했는데, 이곳의 특징은 열악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무료양로원인 ‘평안의 집’이 있고, 무료급식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역을 통해

자식처럼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지역에선 반응이 좋다. 또 강릉장로교회 노인복지 사역인데,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일은 역시 노인대학인데, 주일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인부 성경공부처럼 일정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하는 노인들의 반응이 좋아 참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를 소개하는데, 이 교회는 노인대학을 정신적으로 노인들을 풍요롭게 살게 하고, 노인무료 급식을 주 5일이나 하면서 육체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아울러 강릉시니어클럽을 통해 노후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삶의 보람 있게 보내게 하고 있는데, 이미 강릉시에서는 소문이 나 갈수록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4개 교회 노인복지 활동을 살펴본 후에 다음 장에서는 그들의 활동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곧 4개 교회가 노인복지를 시행함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부정적인 영향과 한계점을 살펴봄으로 앞으로 이들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노인복지를 하려고 할 때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제 5 장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활동 분석

본 연구자는 먼저 강릉시 노인복지와 강릉시 4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현황과 함께 단순한 평가를 했는데, 이번 5장에서는 먼저 4개 교회가 시행했던 노인복지 활동들을 분석한 결과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4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말하고 하는 노인복지 사역의 발전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다질 것이다.

제 1 절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긍정적 영향

강릉시는 중소도시인데 4개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역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인적자원을 적소 배치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시켰고, 교회에서 행하는 노인복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창출이라는 부수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고 아울러 이러한 일을 하면서 노인을 공경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강릉시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좋아졌다는 점 들이다.

1. 인적 자원 적소 배치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강릉시 4개 교회가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 떠오르는 것이 인적자원 적소 배치로 인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이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일을 해도 표면적인 일만 해왔는데, 노인복지를 하면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

인 일을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놀란 것은 자신들 안에 그렇게나 다양한 은사나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특별히 강릉시 4개 교회 안에는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 곧 법률인, 의료인, 경제인, 기술자, 교사, 요리사, 치료사 등과 함께 일반 비전문가인 학생이나 전업주부들로 구분되어있다. 이런 고급인력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일 날 식사 준비하는 일이나 주차 안내 아니면 학생들 교사로 봉사하는 일 외에는 달리 없었는데, 교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 필요한 노인시설의 법인화 과정에 법적자문, 노인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계획의 수립 등이나 아니면 비전문적인 영역인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에서 모두가 필요한 인적자원이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방치해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인 자원들이 노인복지를 감당하는데 중요한 자원임에도 그 일을 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는데, 직접 노인복지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인력자원을 분석할 수 있었고 또한 더 능력 있는 자원이 되기 위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했던 것이다.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쳐 보는 일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어느 교회든 이러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일에만 사용되어지고, 대부분 가용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이 사장되고 있었는데, 직접 강릉시 4개 교회는 노인복지를 감당하면서, 자기 교회 안에 인적자원의 규모를 알게 되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소속감이 있어야 참여도가 높게 된다. 성도가 예배 참석이라는 이유 하나만 갖고는 꾸준한 참석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곧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속감이 더 빨리 갖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강릉시 4개 교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노인복지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단결이 더 잘 되고, 새로운 멤버들과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노인복지를 하면서 교회는 내적인 결속과 함께 대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버린 셈이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의 핵심적인 요소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적재적소의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육성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어찌 보면 국가경제 차원에서 교육의 본원적인 기능은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¹⁹⁷⁾를 위한 개개 인적자원의 취향 및 역량 변별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창출로 인한 경제적 도움

강릉시 4개 교회가 노인복지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면서 인적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인적네트워크가 이루어진 점이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첫 번째 영향과 물론 연결이 되지만, 실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창출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강릉노암교회는 ‘노암복지회’를 통해 노암교회 교인이 50명 가까이 직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노암교회는 ‘노암복지회’와 ‘강릉노인복지센터’라는 두 축을 통해 주간보호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방문도우미서비스, 주간무료급식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자원봉사는 물론이지만 풀타임으로 사역해야 할 정식 직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필요한 인력들을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교우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있을 때도 공채를 통해 일반인들이 지원해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노암교회 교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만약에 어느 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고용창출을 만들려면 연 몇 백 원 매출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회가 인정하는 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 교인들의 노동창출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익한 점이 많은 노인사역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노인복지에서 일하고 싶으면 노암교회에 간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노동창출이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답게 노인들에게도 많이 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도 어렵지만 노인들은 더욱 살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가난과 질병, 가족과의

197) 배치는 작업에 필요한 능력과 인물의 적성을 서로 대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것을 적합한 직무의 의무와 책임에 짝을 맞춘다는 것이다. 배치는 어디까지나 적소, 곧 맞는 직무 또는 직위에 적재를 연결시켜야 한다. 기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직위에 배치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직무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욕구도 고려해야 하므로 매치는 적재적소성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10년 전에 비하여 4배 이상 늘어났고, 자살노인 중 가장 높은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¹⁹⁸⁾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암교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원봉사를 통해 남은 생이 무료하지 않도록 더불어 일하고 있다.

3. 노인공경에 대한 인식변화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이 또 자신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노인복지 사역을 하면서, 외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강릉시에서 대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4개 교회는 인적자원 적소 배치로 인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노동창출로 인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 일을 통해 교인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이 시대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공경하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더 많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노인복지 사역을 통해 노인들을 만나 직접 섬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다.

이렇게 아직은 우리사회에 부모에 대한 효행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인륜이 무너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그리고 철저히 자본주의사회와 문화로 변화되면서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생활태도와 가치관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미풍양속과 가치관이 많이 변해졌다. 한 마디로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불경의 시대를 바울은 예견이라도 하듯 말세를 경고할 때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내용을 넣었다.

부모님을 공경¹⁹⁹⁾하는 것은 인륜에서도 으뜸가는 덕목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하나

198) 실제 작년엔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70대 노부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을 하고, 자식들의 왕래 없이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외로움과 가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게 한국 노인의 실정이다.

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모는 그 자식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다.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소중한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이제 노인들을 잘 섬겨드리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교육으로 될 일도 아니요, 제도적인일로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섬기듯 노인을 섬기게 될 것²⁰⁰⁾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일을 통해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모든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점이 되었던 것이다.

4.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도 변화

강릉시 4개 교회가 노인복지 일에 전담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많은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다른 긍정적 영향과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부정적일 때가 많았다. 우리나라 근대사 발전에서 기독교를 떼 내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어찌된 일이지 최근 들어 기독교는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본주의에 물든 거대한 기업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부패해 있다.²⁰¹⁾ 특별히 대형교회와 목회자의 여러 문제점들은 순수한 신앙인들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로 도를 지나치고 있다.²⁰²⁾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느

199) 예로부터 우리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노인공경 문화를 영위해 왔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서구의 노인들과는 달리 가족에서 환영받고 자손들의 효를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또한 이웃의 공경 속에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다고 습관처럼 믿어 온 것도 사실이다.

200) 노인 공경의 이유는 현재 우리 존재의 원천이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이요, 인생의 값진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바탕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남의 부모에까지 미친 것'이다.

201) 유수한 개신교 잡지에 실린 "한국 교회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제하(題下)에서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교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그만큼 교회마다 분쟁이 많게 되고 걸핏하면 동조자들을 끌고 나와 교회를 개척하는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방송국에서는 교회 부정시리즈를 방영하듯, 연타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를 하면서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어떤 성과보다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노암교회는 노인복지를 하면서 이제 노인복지에 관한 일은 정설이 되어버린 것처럼 모든 기준이 노암복지회가 되고 있다. 소망교회 노인대학은 모든 노인학교의 모범이 되면서, 일반 단체에서도 견할 올 정도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았던 노인들 자신들조차도 변화가 있었기에 주위에 기독교식 전도처럼 계속 선전하고 있다. 노인학교에 참석했던 노인들이 어느 시점이 되자 자신부터 먼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족들에게도 전도하여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노인복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강릉시 4개 교회는 이 사역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적자원 적소 배치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과, 노인복지를 하면서 교인들의 노동창출로 인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교인들부터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더욱 어르신을 섬기려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계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에서 말하고 하는 내용이다.

제 2 절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문제점과 한계

강릉시 노인복지를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4개 교회는 노인복지 일을 하면서 본질적으론 교회의 사명과 복지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한계점과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 결여와 전문성 결여 등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후원체제와 자립체제의 한계성이 드러났으며, 아울러 프로그램 한계성까지 드러나면서 교회에서 노인복지

202) 대형 교회는 주변의 중소 교회들을 고갈시켜 쇠퇴케 하고 대형 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대형 사고는 세상에 막대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냉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과시 소비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고 자체 유지 관리비의 비중이 계속 증폭되며 물질적 기복 신앙을 선호하며 배금사상의 포로가 되기 쉽다.

를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과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과제가 생겨난 것이다.

1. 교회 본질적 사명과 복지 개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노인복지는 국가나 지역 사회에서만 책임질 사항으로 여겨진다.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에 관한 일을 주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든 어떤 사회복지든 종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깊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혹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영혼구원이므로 노인복지일은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교회론의 정의가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구원의 성사로 정의함으로써 교회의 종교적 본질을 강조²⁰³⁾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더 이상 교회 조직이 수행하는 여타의 특별한 직무들 중의 하나가 아니며, 오히려 교회의 종교적 본질의 상징이자 성사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상징화하는 행동하는 교회인 것이다. 교회의 총만하고도 본질적인 행동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은 교회로 하여금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

먼저 사회변화속성상 교회론이다. 이것은 개인의 죄와 각자의 도덕적 잘못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당한 구조와 착취도 비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개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의에 대한 교회사명이다. 기아, 가난, 질병의 정치사회적 원인들에 대한 성숙된 의식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자선사업에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정치-경제적 생활에 대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론과 실천 입장에서 교회론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실천과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이미 습득된 지식의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통찰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곧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복음이요,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변화다. 사회복지

203) 이는 제도적인 시각에서 신학적인 시각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업은 그 주체가 서서히 국가로 옮겨가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에는 교회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많은 사회복지 사업들, 예들 들면, 병원, 고아원, 교육 사업들은 오늘날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 병자들을 돌보는 일, 교육 등의 사업 확장은 시와 정부의 일로 떠넘겨지게 되었고, 이에 교회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한가? 일반 병원이나 혹은 비종교적인 개인 병원과 대조해서 가톨릭 병원은 어떤 점들이 다른가? 교회와 한 국가의 사회법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가지는 의미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에서 노인복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²⁰⁴⁾인 복음전파와 위배되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실천적으로 수행해야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오히려 교회도 그 존재의미로 볼 때 노인복지에 참여 하여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교회는 노인목회에서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인으로서의 노인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노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노암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강릉소망교회와 강릉장로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대학을 통해, 강릉중앙감리교회를 통한 무료급식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노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령교사하는 더 큰 비전속에 노인복지에 투자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다.

2.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 결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노인들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²⁰⁵⁾은 제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4)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의 선포(Kerygma), 사랑의 친교(Koinonia),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봉사(Diakonia)로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발전과 부흥은 20세기 선교사상 놀라운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사회봉사와 사회개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205)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희생의 세대였으나, 그들의 희생은 당연하게만 여길 뿐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했다.

먼저 교회의 인식 부족이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시설, 조직,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교회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근거로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목회적 기능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교인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가 젊은이들을 선호하고 중심이 되어서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이 많으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중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높다. 교회 내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집단이 조직화되어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욕구를 지닌 노년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릉시 4개 교회는 나름대로 목회자부터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에 교인들도 노인에 대한 의식은 남다르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많은 교우들이 노인복지 일에 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교회의 태도에 따라 더 명백하게 달라지고 있다. 곧 교회들의 보수적인 신학과 사회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사회에 대한 책임적인 의식의 결여를 초래하고 사회를 위한 봉사의식의 부재와 신앙고백의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일은 본래 교회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설령 개혁적인 성향의 교회일지라도 교회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노인복지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았다.

다음으로 봉사자의 인식 부족이다. 교회의 봉사자들은 대부분 전문자라기보다는 자원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중복된 업무로 봉사자 교육의 부재로 인해 적극적인 기보다는 피동적인 자세를 가질 때가 많다. 또한 봉사자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나 책임감이 부족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기대만큼의 성과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노인복지에 대한 봉사자 자신의 인식과 교회의 입장 차이에 따른 의식결여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 결여가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라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보니, 많은 지역주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시끄럽다고 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맞벌이 부부들이 노인들을 모시기가 힘들어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주간보

호센터²⁰⁶⁾에 맡기려고 하면, 처음에는 노인들 자신이 어느 기관에 맡긴다는 자체를 거부할 때가 많다고 한다.²⁰⁷⁾ 곧 노인들의 문제는 개별 가정에서 주로 해결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가정에나 노인들이 있고 이들 직계 노인만이라도 제대로 보살피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3.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 결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대학이나 독거노인을 돌봄을 담당하는 지도자는 분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교회 담임목회자들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분명 운영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는 전문적인 자격증 없이는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있다. 봉사자들은 그 분야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효과 있게 교육시킬 지도자 또한 노인복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만한 이론적인 부분을 감당할 유경험자가 부재한 상태인 동시에 노인을 상담하고 치유할 만한 전문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이다. 설령 전문지도자가 있다하여도 보수가 적고 환경이 열악하여 그들에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그 역할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 지도력이 있다하여도 자신의 직업이나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사회는 전문화 시대이다. 교회에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명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주관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이나 사회기관과의 유대 관계가 결여되어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교회내의 행사로 끝나게 된다.²⁰⁸⁾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교회

206) '노암복지회'에서는 주간보호센터와 소규모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7) 처음에는 노인들 자신이 시설에 맡기는 것을 꺼려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기하는 노인들이 넘칠 정도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가 주택과 멀어지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올 수 있지만 노인들은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노인을 부양하거나 교회 출입을 돕는 경우가 흔치 않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노인의 교회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인복지 실제 전선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비전문성도 문제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체계적인 수행체계는 다 다른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기존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거의 모든 부분이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교인들은 관객에 불과한 수동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현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때이다. 기존에는 목회자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회자 중심적 경향이 강했다. 목회자 중심적인 경우 활동이 제한적이며 비체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혼자서 모든 일을 할 경우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활동의 수행체계는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목회자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지만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교회활동은 목회자의 기획에 따라 실무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 각 기관과의 연계성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와 노인복지 일을 따로 따로 돌아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전문지도자가 더 필요하고, 비체계적인 수행체계가 일률적인 체계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4. 노인복지 프로그램 한계성

현재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보면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어서 교회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된 보고서가 아직 전무한 상태다. 학습방법도 거의 집단 학습이고 주입식 교육으로 되어있어 현대적 교육방법론과 다소 거리가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그런

208) 교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결국 전교인들에게 돌아갈 과실이기에 노인 세대만을 위한 투자라고만 볼 수 없다. 누구나 교회의 노인 세대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충실한 교회는 미래의 노인들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기에 그만큼 교인들을 붙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 구호적인 성격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운영의 노인복지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

노인은 학습능력이 낮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교육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지만, 노인들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서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며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게 되며,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노인들 자신의 역할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 대한 여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강릉시 4개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전문성과 일관성 속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행사성이 짙고 일률적인 세속적인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별반 없다. 진정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교회마다 자신들의 특징을 살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4개 교회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큰 틀 속에서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²⁰⁹⁾

이상 내용을 요약해보면 4개 교회는 노인복지에 관해 시와 이웃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문제점과 한계성을 아울러 드러내고 있었는데, 먼저 노인복지 일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인복지 사역에 대한 정체성의 한계가 드러났고, 다음으로 교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는 점과, 아직까지도 홍보부족인지 지역주민들의 관심 결여와 봉사자들의 사명 의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시행하다보니 전문지도자 부재로 인한 비체계적 수행체계라는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 되었다.

제 3 절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과제

이렇게 강릉시에서 노인복지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4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사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본 3절을 통해 앞으로의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를 밝히면서 제6장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사역의 발전적 전략의 마지

209)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이고 선교적인 프로그램 개발.

막 전 단계가 될 것이다. 그 과제란 먼저 교회를 벗어난 인적자원의 활용방안과 시설 및 조직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 자원의 활용 방안이 곧 앞으로 4개 교회가 해야 할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다.

1. 교회를 벗어난 인적 자원의 활용방안

인적자원의 노인복지사업 활용²¹⁰⁾에 관한 방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은 사회봉사와 이웃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 사명감에 찬 봉사자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명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모든 일은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주관하는 것을 평신도가 주도할 경우 교회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목회자는 방향만 설정해 주고 전문지도자나 교인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교회 내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몇 가지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도자 발굴이다. 교회 내에 노인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동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도자의 발굴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목회자가 뜻만 있으면 교회 내 노인복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목회자의 능력이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에 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직자나 평신도 중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했거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회에서 백 배 활용해야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노인복지 사업이 성과를 올릴 수 가 있다.

둘째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는 일이다. 현대사회는 전문화 시대다. 교회에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²¹¹⁾ 교회가 사회사업 전공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이러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켜 전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을 얻도록 한다.²¹²⁾ 이들의 전문지도력과

210) 하나님께서 교회공동체를 형성할 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지닌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211) 임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45-47.

212) 직접 노인복지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성도로서 교회가 실시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일을 알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아울러 최소한 동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내 조직적 후원으로 전 교인에게 노인 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도 같은 평신도를 통하여 그것도 전문적인 평신도 사역자를 통한 교육은 더욱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셋째는 자원봉사자를 주기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교회 내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노인들을 위해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²¹³⁾과 같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육성한다. 교인을 통한 자원봉사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지원 사업이다. 생활능력이 없고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노인을 여유가 있는 교인이나 평신도 모임과 결연사업을 통해 취사, 세탁, 병원동행, 이미용 서비스, 가사와 관련된 원조를 제공한다. 둘째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단독세대 노인을 방문하여 돕는 가정 봉사 일을 한다. 셋째는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가운데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들이 보조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는 노인들은 배우자나 친한 친구와의 사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 및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감한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기 쉽다. 이들에 대한 방문 상담과 섬김의 봉사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해 나가므로 전문지도력과 교회 내 조직적 후원으로 전 교인들에게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켜 온 교인이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목회자 중심 아니면 최소한 실무자 중심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사회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적절치 못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교회 내의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²¹⁴⁾

하지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나 교인이 있는 교회일수록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이는 교인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노인 복지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213) 원석조, *사회문제론* (서울: 양서원, 2003), 393-394.

214) 강릉소망교회가 모체가 되어 태동된 강릉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창출)은 강릉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강릉노암교회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이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시와 기관과 협조적 체계 속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시설 및 조직의 활성화 방안

시설자원이란 교회 내의 모든 토지 건물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자원을 말하며 교회 예배당과 부속시설 및 기계 기구시설 등을 의미한다. 개신교의 시설자원이라 할 수 있는 개체교회는 한국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¹⁵⁾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자원이 이미 교회 안에는 준비되어 있는 셈이다.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지만 이들 교회는 대부분 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식당, 회의실, 주차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교센터, 지역개발원, 유치원, 선교원, 사회교육원을 운영하는 교회도 많다.

강릉시 4개 교회들의 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강릉노암교회는 본당과 교육관, 복지관, 부속 요양원 시설, 유치원, 큰 식당, 주차장, 운동장 등이 있고, 강릉소망교회나 강릉중앙감리교회는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강릉장로교회는 그 외에 2천 평이나 되는 대 주차장과 동산까지 있어 강릉시 행사까지 담당할 정도로 시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교회에서 시설과 공간을 지역 복지를 위해서 평일에도 시설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곳이 많다. 교회가 시설자원을 교회의 본질적 목적인 복지를 위해 가능한 자원으로 시설을 개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가난한 노인들의 비좁은 생활공간을 감안하여 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자원을 함께 나누어 쓰는 청지기의 역할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 교회 시설공간은 주일 외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중간시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소 등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교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²¹⁶⁾

조직자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봉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봉사인력, 물질 자원 등을 관할 할 수 있는 치밀한 조직체가 요구된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구역조직과 기관조직들이 연령별과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기에, 마음

215) 2000년 9월 문화관광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교회당 수는 38,760개소이다.

216) 강릉노암교회는 노인복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을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행복마을'이라는 소규모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식당도 더 크게 확장하여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만 먹는다면 노인복지를 감당하는데, 이러한 조직 자체는 훌륭한 조직자원이 될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교회 활동은 가정심방 목회나 구역, 가정방문 목회 등의 조직적인 활동이다. 교회의 조직자원은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구조를 소유한 사회기관으로서 조직은 방대하면서도 섬세하게 사회복지 자원으로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²¹⁷⁾ 이러한 조직을 통해 효율적인 노인복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교단 본부나 총회가 개 교회의 사회봉사부의 유기적 연결을 가지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전문화,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¹⁸⁾

교회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가장 효과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 교회 보다는 지방의 단위 혹은 인근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의 동기가 다른 조직체보다 강한 곳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차원의 준비, 곧 동기의 유발, 능력의 유발, 기회의 창출이다. 이것은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내는 일이다. 이 바탕에 자체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봉사자를 개입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외적으로 좀 더 폭넓은 교단별, 사회기관별, 지역교회별,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간다면 더욱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재정자원의 활용방안

재정자원이란 교회의 기능인 선교, 교육, 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량의 재물이나 재화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자원을 말한다. 아무리 좋은 뜻과 또 전문적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재정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역할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효율적인 사회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²¹⁹⁾

217) 고충업, "인구 고령화와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01), 78.

218) 실제로 소망교회나 노암교회는 예장 통합 측으로서 총회로부터도 프로그램 상이나 노인복지에 관한 전략적인 도움과 교육을 받고 있다.

219) 조흥식, *교회 자원의 지역복지 활용방안*, 제 1회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 자료집 (대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2000).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의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자원은 세속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간주하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자로 짐을 나누어서 지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선교적 사명 속의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외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모금운동, 헌금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교회의 노인복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각 교회의 교인들 중 재정자원을 동원시키는데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과 그 역할이 무한하다고 본다.

재정을 확보함에 있어 큰 교회는 의지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중, 소도시 교회들은 재정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재정 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독지가 발굴, 바자회, 공동모금, 지역 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에서 연중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이다.²²⁰⁾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이 인정되었을 때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²²¹⁾

사회의 모든 자원과 개인에게 있어서도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 등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의식 속에서만 재정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²²²⁾ 교회의 재정은 경상비를 위해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외되고, 외롭고 약한 이웃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선교초기에는 선교사들이 과감하게 지역봉사와 구제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교회의 이웃사랑을 선교정책으로 삼고, 구제하고 봉사하므로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제는 교회재정에서 사회봉사비, 특별히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강릉노암교회나 소망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특별한 예산을 물론 세우지만, 그 외에도 바자회 등을 통해 수시로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220) 교회예산에 반영 방법은 교회가 이웃을 위해 계획한 사회복지 사업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회마다 재정능력이 동일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도시의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역부족이다.

221) 교회가 시설과 자원봉사자를 제공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중소 도시의 중형교회들이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222) 노승민,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35-37.

4.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방안

교회가 노인복지에 대한 충실한 투자는 현재의 노인 세대들의 혜택일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미래에 자식들에게 돌아갈 안정적 보장의 혜택이 되기도 한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노인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듯 별 다르지 않게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교회의 선교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³⁾ 프로그램 실천에 앞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교회에서의 실천 가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제공과 의뢰 및 보험신청, 보조재가, 건강증진 서비스, 삶의 향상프로그램, 교통편의 제공, 집단 서비스, 권익보호, 재산보호 및 법률상담, 병원 및 요양원 선교 등이다.²²⁴⁾

다음은 노인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혼합한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19>는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큰 분야별로 구분하여 만들어 보았다.

<표 19>에서는 노인의 독립성과 갈수록 독립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능력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것만 제시했다.²²⁵⁾ 일반적으로 교회 지역복지활동의 실천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역복지활동을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 하에 실시하되 지역복지의 전문성과 기독교성을 가미하는 유형²²⁶⁾이 있고, 둘째는 교회가 자신의 건물 내에서 실시하는 전문적, 비전문

223) 함영철,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주: 한일장신대 기독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7-39.

224) 미국 미조리 주에서 캔자스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수양센터 Shepherd's Center of America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225) 교회 지역복지 활동을 실시하려고 할 때,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참작하여 다양한 유형의 복지대상자들 가운데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자원활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226) 이 유형의 대표적 케이스가 강릉노암교회에 운영하는 '노암복지회'라는 재단이다.

적 지역복지활동을 실시하는 유형, 셋째는 교회가 직접 지역복지활동을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자원봉사의 기독교적 동기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하는 유형 등이다.²²⁷⁾

<표 19>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분류²²⁸⁾

삶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입소자 집단활동 입소자와 결연	노인홈 노인아파트 주택공용 교통편의 제공	교양강좌 자원봉사파견 시민운동참여 클럽활동 문예창작 체육대회 공동작업 마을미화작업 사회봉사문예음악발표회 일감제공 노인정과 연합활동 젊은이와 연합 활동 노인권익 옹호활동 노인합숙훈련
인식강화를 위한 서비스	병원선교 요양원 선교	가족상담 젊은미대상 노인이해 교육, 위기개입 합동생일잔치 가족동반프로그램	목회상담-개별, 집단 정보제공과 의뢰 퇴직계획교육 죽음에 대한 교육 인간관계교육
신체적 보호를 위한 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신체적 보호 서비스	교회에 목적 휴대공간제공 우애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중식제공, 중식배달 자조집단, 그룹 홈 극빈 노인 결연과 후원금지급 긴급의료서비스	재산보호 서비스 법률상담
생존을 위한 서비스	요양원 호스피스	거동 가능하지만 노쇠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건강교육 범죄 예방훈련 건강클럽
서비스 목표 노인	병약한 노인을 위한 시설 서비스		비교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

227) 물론 교회에 따라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복합유형도 있다.

228) 김동배, *노인문제와 교회 역할*, 173.

그러므로 교회 지역복지 활동은 교회라는 특수한 장에서 비전문 요원이며 종교적 동기를 지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떻게 지역복지 활동을 전개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교회 지역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내용이 될 수 있다.²²⁹⁾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활동 분석’을 요약해 본다면, 강릉시 노인복지와 강릉시 4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기초로 하여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했다. 먼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가 과연 교회 본연의 사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노인복지 사역에 대한 정체성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났고, 아울러 교회에서는 아직도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프로그램의 한계와 전문 지도자 부재로 인한 비체계적 수행체계라는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 등은 있었지만 이것이 4개 교회의 과제가 된 셈이다. 그 과제란 먼저 교회를 벗어난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요, 교회시설 및 조직을 활성화시켜 노인복지에 적합하게 사용하자는 방안이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좀 더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개발시켜 다양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한 운영의 묘를 살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노인복지는 다른 기관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4개 교회 노인복지 활동을 분석한 후에 문제점과 한계점을 안후에 앞으로 도 계속 감당해야할 노인복지 사역에 대한 발전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다음 장은 본 논문의 마지막 장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활성화 방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후에 구체적인 수립 과정들을 통해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229) 이 지식과 기술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반드시 교회 자원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 6 장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사역의 발전적 전략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 강릉시 4개 교회가 앞으로의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가 곧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인복지 사역의 발전적 전략이 될 것인데, 그 전략이란 먼저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바로 하기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성서적 원리 속에서 설교와 교육 그리고 현장교육을 통해 의식변화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후에는 구체적인 타개책으로 교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미션 수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선 노인복지에 대한 실천적 제안으로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하므로 발전적 전략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제 1 절 교회의 노인복지 의식의 변화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어떤 일보다 노인복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므로, 제1절에서는 그 의식변화를 위해 목회학적으로 접근방법과 함께 설교와 여러 교육을 통해 그리고 현장 견학을 통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바른 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데 있다.

1. 노인복지 목회의 목회학적 원리

교회는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궁극적

인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 사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하는 장인 것이다. 섬김을 통한 사회적 선교는 교회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의 하나이다.²³⁰⁾ 특히 현대와 같이 가족개념이 변화되어 가정의 중요성마저 상실되어가고, 그로 인해 가족구성원 간의 사랑과 존경심마저 잃어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대로 모든 문화의 생활패턴이 변해감에 따라 노인들은 더욱 심각한 고독과 소외감에 빠지게 되며, 또한 현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안감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에 입각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오늘 날 사회복지 제도의 기원이 된 것²³¹⁾이다. 교회가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사업의 실천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며, 교대 사회에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상호부조의 형태를 띠고 고아나 불우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 이것이 구역의 자선사상에서 발생한 자선사업이다.²³²⁾

성경에서 부모공경, 노인공경을 가르치며 그렇게 한 결과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의 노인을 공경하고 이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 교회가 책임을 느끼고 복지사업을 실천해 가고자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로 심각한 이 세대는 노인 복지 사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기대와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²³³⁾

특히 목회자의 교육, 훈련 경험의 빈곤은 목회자의 사회복지 의식과 사회복지 활

230)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들에게 화해와 복음을 줌으로써 세상을 향해 사랑의 실천으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31)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초대교회 시기부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으며, 현대의 사회복지 제도를 발전시키는 사상적 및 제도적 기원이 되었고, 오늘 날도 민간 사회복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32) 김찬종, “노인복지 사업의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8), 40.

233) 최성재,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 (서울: 예장노인학교 연합회, 2001), 3.

동 참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높은 사회복지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정보가 부족하고, 방법에 대하여 무지하며, 현장경험이 없다면 두려워지고 망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전 교회적인 목회행정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 일을 위해 목회자들은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를 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재생산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노인의 피난처가 아니라 공경을 받으며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영적 공동체로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성서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어떤 교회든 처음부터 모든 교우들이 노인복지 목회에 찬성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향존직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모든 교우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특별한 날을 정하여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성서 속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설교와 교육을 통해 교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갈 때 방관자에서 동역자로 변화될 것이다.

성서 속에는 우리가 왜 노인을 위한 복지를 힘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 성서는 우리에게 노인을 먼저 공경의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부모에게 순종,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신 5:16; 엡 6:1-3). 이것은 자녀들이 축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다(출 20:12). 부모로서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구별이 없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노인을 공경치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잠 23:22; 30:17).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함으로 자녀들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서는 노인들을 지혜의 상징(신 32:7)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의 나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니 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고독하게 지내도록 할 게

아니라 존경하고, 훈계를 경청하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노인이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영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도 단지 나이가 많은 것만으로도 축복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아래 의인의 삶을 살며, 자시고가 후손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즉 우리는 노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어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으로는 무기력하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잠 16:31)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단순히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회가 노인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편 71편 9절을 보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노인을 신체적 특성상 연약하고 활동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교회 내 노인은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노인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설교와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주지시킬 때 노인을 돌아보고 노인복지에 관심 갖는 일은 선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인들은 협력자가 되며 어떤 일이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3. 교회적 상황을 통한 의식변화

교회에서 노인복지 사역을 하려면 먼저 노인복지 목회에 관한 목회학적 원리가 분명하게 서야하고, 성서적 입각에서 교육을 통한 의식이 필요하다.²³⁴⁾ 그런 후에는 교회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교회에서 노인복지 사역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교회적 상황이란 앞으로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먼저 교회인구의 고령화가 바로 노인복지를 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²³⁵⁾ 교회에서 조차 사회의 일반적 윤리나 도덕적 의식의 희박함과 함께 젊은

234) 이종복, 지역사회 노인복지 문제와 교회의 대응, 한일장신대 사회복지 세미나 (2000).

235) 정태기, “노인을 위한 목회상담,” 기독교사상, 1985년 1월호.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로 교인들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거나 교인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날 상황 속에서 기존 교인들조차도 계속 고령화하게 되면 교회가 고령화되는 현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예측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미리 노인복지를 교회에서 하면서 노령인구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의 선교나 전도 활동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다. 개인적 전도, 전도지 배포 등에 의한 전통적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전도의 방법이란 다름이 아닌 노령화 사회 속에서 전도대상자와 선교대상자를 노인들에게 맞추어 적극적으로 교회가 사회복지나 또는 사회봉사 활동 참여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일을 하는 자체가 어떠한 전도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적 상황 속의 의식변화와 함께 실천적인 의식변화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나 국가로부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요구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이미 시설이나 자원 그리고 조직 면에서 노인복지를 할 만한 능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곧 교회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이므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에 참여해야 할 명분이 있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런 기대와 요청이 증가할 것이다.²³⁶⁾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실시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교회적 상황에서 의식변화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다. 교회가 그 동안도 지역사회 속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여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단순히 사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봉사하게 하는 등 교인들을 위주로 하는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이러한 문제와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해야만 노인복지 사역이 확장될 것이다.²³⁷⁾ 이러한 필

236) 노인보호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노인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노인 의료비, 연금 및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들의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들의 사회복지 참여가 크게 기대될 것이다.

237)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만으로 불충분하므로 개인적인 준비

요성과 욕구들이 교회가 노인복지를 해야 할 교회적 상황인 것이다.

4. 현장견학을 통한 의식변화

이제 목회학적 원리, 성서교육적 원리, 교회적 상황을 통해 교인들과 목회자 의식을 먼저 변화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를 잘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게하고 실습케 할 때 참가자 스스로 방법이 세워지고, 미래가 그려지게 될 것이다.

강릉에서는 노인복지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다. 강릉노암교회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을 먼저 임직자와 실무자들이 먼저 현장견학 후 평신도들에게는 노인복지 기관장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사례발표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게했다. 그 곳에는 초기치매나 중풍, 만성질환 어르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 독거나 외로움으로 정서적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재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강릉시 4개 교회는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이곳저곳 세심하게 돌아보았다. 먼저 강릉효도마을은 모범 시설답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 초현대 시설들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어 흐뭇함을 가졌다. 또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복지사들의 친절하고 밝고 따뜻한 모습과 미소가 전해져 따뜻한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었다.²³⁸⁾ 한결같이 현장견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더 넓은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시설뿐 아니라 재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도 방문하길 원했다고 한다.

강릉소망교회는 노인대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답게 2004년도 전국에서 노인대학을 잘 하고 있다는 네 군데의 교회를 견학하였다. 노인대학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다. 어느 노인대학이든 모두가 노래와 식사는 공통적으로 있었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최저한의 생활보장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노후에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경제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경제적 대책 외에도 여가활동에 대한 대책도 중년기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38) 그들은 현장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독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남은여생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과 지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통합, 사회가 통합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다. 또 어느 노인대학은 그들만의 프로그램이 있었다.²³⁹⁾ 그들은 한 번 갈 때마다 승합차로 같이 갔었는데, 오고 가며 노인대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각각 그 노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게 하고, 자신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쓰게 했다. 이러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서로 발표하게 하고 토의를 하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강릉시 4개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 곧 노인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고급실버타운이나 아니면 노인대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를 방문하듯, 직접 현장견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미래 설계를 자연스럽게 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장견학을 통해 실무자를 물론이고, 교회 임직자들과 교우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²⁴⁰⁾

이상 내용을 요약해보면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할 때 문제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른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을 위해 목회학적으로 접근한 후 교우들에게 성서적 입각에 의거한 교육과 왜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적 상황을 통한 의식변화 후 직접 현장에 방문하므로 구체적인 의식 변화를 가져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제 2 절 구체적 수립 과정

먼저 본인은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지했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바탕 속에 이제 교회 안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수립과정을 설명하고자 함인데,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제시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 노인복지를 감당할 장소와 연합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교우들에게 계속적으로 동기부여와 훈련이 있으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시행케 한다.

239) 정길영, “소망노인대학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6), 63-64.

240) 강릉 모 교회에서는 현장견학을 통해 노인복지가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노인복지에 대한 기획

기획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획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거기에 어떻게 갈려고 하는지, 도착했을 때 원래 정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획은 앞으로의 행동에 필요한 틀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관리 활동²⁴¹⁾이 기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획은 먼저 기본전제를 세우고, 그 사업에 대해 예측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후 활동계획을 전개²⁴²⁾시켜 나간다. 이러한 기획과정을 통하여 너싱홈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성취 가능한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잠재해 있는 미래의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고, 의사결정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한다 해도 이제는 일반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 속에 미래를 예측하며 실시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²⁴³⁾ 그리고 삶과 변화의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사업에서의 운영자는 최근의 변화를 따라 잡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 속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공동체로서 다른 일반적인 민간사회복지단체와 다른 특성이 있지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사회복지단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든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획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기획과정을 거쳐 기획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상식의 수준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

241) 조직, 인사, 지휘, 통제.

242) 내외적 환경의 상태와 관련된 가정, 예측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입수된 정보, 설정된 구체적 목표 등을 근거로 해서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행동계획을 개발한다.

243) 과거에는 단지 입소자들이 입소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의료보장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너싱홈환경이 경쟁적인 사업과 점점 유사해짐에 따라 너싱홈은 사업적인 운영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압박감을 점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히 교회와 같은 조직에서는 교회내의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회 내에 전문가가 없거나 아니면 전문적 기획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봉사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획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교회는 일반 민간사회복지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특히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의 수행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또는 청지기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에 있어서의 기획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2. 장소 활용과 연합 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은 교회가 실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 사회봉사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 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교회 내에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사회봉사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봉사의 장소는 사업에 따라 교회 내와 외로 다양할 수가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의 장소는 교회 내, 지역의 사회복지관, 불우한 사람들의 집, 시설, 병원, 소년원, 특수학교 등²⁴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내의 타 교회 및 다른 복지기관과의 연합활동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내의 복지기관간의 협의조정과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특히 지역사회내의 교회와 교회간 또는 교회와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나라 교회가 개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교회가 사회봉사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소홀히 해 온 점 때문인 것으로 본다.

교회는 사회봉사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사회학적 측면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내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지역사회의 단체이므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고 지역 사회인들도 교회에 대하여 복지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²⁴⁵⁾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한 민간복지단

244) 실제로 강릉소망교회는 아동센터를 교회에서 독립시켜 대상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장소를 얻어 운영해 나가고 있다.

245) 교회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봉사사업을 통하여 지

체로서 정부의 사회복지 노력에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정부로부터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교인을 얻어 교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한 물질의 일부를 가시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교환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교회간의 연합 또는 다른 복지단체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의미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고 결국은 교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기독교의 선교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사회복지 사역들은 교회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에 경제적인 문제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 속에서 지역과 협력하여 노인복지를 감당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곧 교회 밖의 복지자원까지 동원시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내의 문제아동이나 불우아동, 불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정부 및 민간단체²⁴⁶⁾, 기업, 개인으로부터 복지 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회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재정원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동기부여 및 위원회 구성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된다. 교회는 주로 교인 개인으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거나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속에 교인들을 참여시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자 및 지도자들은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과 실천방법에 대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직훈련이나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인들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철학과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동안 교회는 시대마다 큰 흐름이 있었다. 기도나 제자훈련, 경배와 찬양식의

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246) 라이온즈 클럽, 로터리 클럽 등 유사 봉사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각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분명한 분야 속에서 한국교회는 인정받아왔고 성장해 왔다. 하지만 21c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교회만의 잔치를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는 이익을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헌금의 용도, 건물의 용도 등 꼼꼼하게 사회단체에서 메스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흐름 속에서 교회는 새삼스럽게 소금과 빛의 원래 소명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청 속에 사회복지 사역은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사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특별히 노인복지 일은 교회만의 여러 장점 속에 다른 여타 어떤 기관보다 훌륭하게 감당할 좋은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하려면 먼저 기획과 함께 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강릉소망교회는 2003년 3월 9일 당회에서 사회봉사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2004년 연말 정책당회 때 노인사역에 관한 사역을 선포하고 위원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²⁴⁷⁾ 제1회 사회봉사위원회 모임이 2004년 1월 4일에 소망교회 새신자방에서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다음 <표 20>은 소망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위한 예산안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전체 항목 비율대비를 표로 만들었다.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수익나 삼배, 모시옷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과 장소를 완비해 주는 일과 공원을 관리하고 주차 정리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설하기로 결의하였다.²⁴⁸⁾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무료급식센터²⁴⁹⁾를 결의하고 바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울러 제 2회위원회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체육대회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고, 제 3회 위원회에서는 제 4회 늘 건강 소망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기로 했고, 제 4회 위원회에서는 규칙을 개정하고, 목적사업 기관장을 선임하였다.²⁵⁰⁾

247) 강릉소망교회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 송문길 장로, 부위원장: 강철식 장로, 서기 및 사무국장: 류성현 집사.

248) 소장에 김명열 집사를 선임하였다.

249)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못 가는 노인들이 많아 교회에서 무료급식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하루 70명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등 주 5일 동안 350명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다.

250)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갔다.

<표 20> 2004년 지출 예산

구분		예산		예산총액	비율(퍼센트)
		예산항목 및 금액			
조직운영 관리비	후원자 확대	CMS후원확대	100,000	14,200,000	19.4
	홍보비	회보 발간	2,200,000		
	운영비	시설운영관리	11,900,000		
무료급식사업소		급식비	26,800,000	23,800,000	35.2
노인대학	교육비	학생모집	200,000	16,990,000	21.5
		교양교육	100,000		
		신앙교육	100,000		
		특별교육	1,500,000		
	건강증진	건강검진	200,000		
		각종대회	3,200,000		
	경로잔치	어버이날	400,000		
		노인의 날	400,000		
	자원봉사	강릉홍보	4,000,000		
		환경보호	1,500,000		
노인공동작업장		시설비	18,200,000	18,200,000	23.9
총계				76,190,000	100

4. 프로그램 시행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이미 노인복지에 대한 기획과 동기부여 및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진행자가 첫 번째 관건이 된다.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인 중에 사회복지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나 또는 특별한 서비스의 전문가가 전적으로 사회봉사사업을 자원하여 전담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²⁵¹⁾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교인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라도 교회의 노인복지 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역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업이 적합한가는 지역사회조사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일회적인 것-예를 들어 위문방문 등-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도하면서 전도의

251)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교인중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거나 유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도 일회적인 접촉이나 관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을 장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들은 노인대학에 참석하는 이유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대답한 학생이 82.9퍼센트를 차지했다.²⁵²⁾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건강강좌나 헬스와 목욕 그리고 게이트볼 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혜의 대명사로서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대부분 노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라는 답하는 학생이 90.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활동하면 머리도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은 학예발표회나 영어나 한문 배우기 강좌 그리고 박물관이나 문화관 견학 등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공경 받는 노인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은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공경 받을 자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답하는 노인이 73.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들에겐 상담이나 노인학 강좌 그리고 학생들에게 예절교육 직접 시키기 등이 적합할 것이다.

네 번째는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에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97.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이미용이나 식사 및 반찬 배달 그리고 건강 체크 및 간호 등의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열매 맺는 노인에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무언가 결실 있는 삶을 요구했다. 이들에겐 채소 가꾸기, 자원봉사단 구성하여 직접 봉사하기, 자연보호 캠페인 등이 있다.

이렇듯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노인

252) 노인대학에 나오는 대부분 노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먼저 목회자가 당회나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 제시한 후에 허락을 받아 거기에 맞추어 장소나 재정을 충원하면서, 교우들에게 계속적으로 동기부여와 훈련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후에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제 3 절 교회 노인복지 실천적 제안

먼저 본인은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본 논문의 마지막 절로서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사역에 대한 발전적 전략에 대한 실제적 제안으로, 먼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의식을 통한 가족애 프로그램 그리고 구체적 시설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해 봤다.

1.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의 건강은 의료서비스나 영양보충 서비스 및 항시 보호 상태에서 돌봄으로 유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장수했고 건강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건강도 잃게 되어 육체적 수명이 단축되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잃었던 형상을 회복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강릉장로교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어르신께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 중 55.1퍼센트가 건강문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노인학교에 참여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0.8퍼센트가 건강증진을 위한다고 답했다. 이만큼 노인들에게 건강 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므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들의 부양가족이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보호에 어려움이 많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경미한 노인들을 교회에서 교회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자원 봉사자를 파송하

여 가족들의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²⁵³⁾

다음으로 '독거노인 방문 간호사 파견' 프로그램이 있다. 교회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 교육을 시켜 지역사회의 병든 노인들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진단²⁵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시 인근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 연락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안내 해 준다.

셋째는 '무료급식 실시' 프로그램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난한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주 2-5회 교회 형편에 맞추어 교회 식당을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식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므로 상호 간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²⁵⁵⁾

2. 공동체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 지지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회적 지지서비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킴에 있어 교회에서는 신체의 오감을 들어 봉사하는 운동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가사 도우미 프로그램'이다. 가사도우미란 자원봉사자가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식단 차리기, 쇼핑, 세탁, 집안청소, 가구이동 등의 가사를 도와주거나 허드렛일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각운동이라 호칭²⁵⁶⁾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를 가사도우미가 가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말벗 도우미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전화심방을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상태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그들에게 자식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²⁵⁷⁾ 특히 우환질고로 인하여 출입이 부자

25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안식과 노동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결과이다.

254) 체온측정, 혈압측정, 혈당측정 등

255) 먹으려고 산다는 사람이 있을 만큼 먹는 행위는 사람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가장 규범있는 행동일지 모른다.

256) 우리 몸의 시각은 사물을 바라보게 지어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돌봐야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시력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지며 필요이상의 집착으로 물건들을 모아두는 습관이 생겨 집 안이 지저분할 수 있다.

257) 이것을 일명 청각운동이라 호칭한다.

연스러운 독거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이 노인치매 예방과 소외감 해소에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청각운동을 전개하여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림으로 소외감 해소와 흔들림 없는 신앙심을 유지하도록 하여 할 것이다.

셋째는 '급식배달 서비스의 실시 프로그램'이다. 급식배달 서비스는 가난한 노인가구나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가정에 배달해 주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 때 노인 각 장의 건강상태를 고려²⁵⁸⁾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각 가정에 전달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 가난한 노인 가정이나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해 냉장고에 넣어주는 반찬 배달서비스로 정기적으로 그들을 접촉하면서 건강과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넷째는 '심방도우미 프로그램'이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자원봉사가 일주일에 하루 방문하여 함께 바둑이나 장기, 카드놀이, 편지쓰기, 쇼핑함께 가기, 같이 대화 등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이다. 노인들이 소외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며 간단한 가사봉사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감각운동이라 호칭한다.²⁵⁹⁾

다섯째는 '상담 도우미 프로그램'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한 가족과 사회와의 갈등, 역할과 지위의 상실에 따른 자아상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따른 노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노인들을 위한 상담은 노인과 그 가족에 관한 상담, 노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취업상담 등이 있는데 교회 내에 상담인력이 미비 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상담원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후각운동이라 칭한다.²⁶⁰⁾

3. 생활불편 해소 프로그램

노인들은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체적 노후로 이동

258) 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노인 개개인 증상에 맞춘 음식.

259) 인간은 만남을 통하여 적대감을 해소하고 - 피부를 접촉하므로 신뢰감이 형성되므로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안마해 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림으로 사랑을 경험토록 한다.

260)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약화와 죽음에 대한 공포감, 사회활동 및 가정에서의 지위 퇴보감 등으로 오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교회 목사나 상담지도원의 도움을 받아 그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불편하다. 누구나 자신이 가고 싶거나 가야할 곳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필요한 장소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 및 접근에 관한 욕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강릉노암교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어르신께서는 노인프로그램에서 신체적 취미활동을 실시한다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건강 체조 39퍼센트, 가벼운 등산 22퍼센트, 수영 5퍼센트, 여행이나 아유회 8퍼센트, 게이트볼 2퍼센트, 컴퓨터 15퍼센트, 기타 9퍼센트로 활동량이 많은 운동보다 활동량이 적은 체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¹⁾

첫째는 교통편의 제공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차량이나 성도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교회행사에 참여하려 할 때 우선적인 도움이 주는 것이 좋다.²⁶²⁾ 특히 노인이 되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마음으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체적 거동불편으로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회차량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하므로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그들도 경험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중요하다.²⁶³⁾

둘째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이다. 교회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는 내용의 각종 정보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무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날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 하여 각종 정보가 인터넷과 각종 정보매체를 통하여 보급되고 있으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기 쉽다.²⁶⁴⁾

셋째는 ‘생활의 길잡이 프로그램’이다. 교회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경우에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부탁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²⁶⁵⁾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261) 이러한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충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62)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63)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형상을 닮은 인간고 그러한 속성이 있다.

264)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정보들을 노인들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지식을 가지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5) 특히 유기되었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이 있다면 신속한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복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사업체, 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고 필요시에 적절한 도움을 의뢰해야 한다.²⁶⁶⁾

넷째는 ‘주택관리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은 신체가 쇠약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기가 불편하다. 교회는 자원봉사 성도들을 활용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출입문이나 부엌, 화장실, 욕조 등의 구조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고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에 수도관 수리, 전기 수리, 난방수리, 페인트 칠, 지붕수리, 벽지교체 등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은 노인에게 있어서 안식처이며 생활중심지이므로 안전하며 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미는데 교회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간을 정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4. 시설 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구조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가고 독거노인이 증가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의 하나로서 노인복지 시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극소수의 노인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복지 시설 및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드린다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교회에 출입하므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회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실시하기에 제언한다.

첫째는 ‘사랑방 제공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랑방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모여 대화와 정보교환을 하며 지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말한다. 교회는 노년에 홀로 되어 절망과 고독에 빠져있기 쉬운 독거노인들을 한가족 운동을 통하여 도울 수 있다.²⁶⁷⁾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월세나 전세를 얻어 따로 생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적인 갈등 속에 살게 되므로 노인들의 쉼터인 교회 사랑방 운동은 그들의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하므로 자신 있는 노후를 보내게 한다.

둘째는 ‘놀이방 제공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시설을 활용하여 놀이방을 마련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여 취미생활, 오락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266) 현대는 전문화된 시대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며 상호보완 유지하는 시대로 교회의 좋은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돕도록 한다.

267)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핵가족과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자녀를 따라 사는 경우가 많다.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체육시설이나 기도원을 활용한 텃밭 만들기 등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도록 하는 놀이방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공부방 제공 프로그램’이다. 한국교회 노인대학 연합회 등의 조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는 약 310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⁶⁸⁾ 이러한 노인학교는 대부분 90년대에 들어서 활성화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공신력 저하와 이에 따른 성장둔화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강조된 데에 있다. 그러므로 21c 고령화 시대에 교회 내 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노년부 교회학교를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신앙교육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익히는 훈련을 통하여 보람찬 새 삶을 사시도록 교회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사회봉사대 조직 프로그램’이다. 노인들로 하여금 교회나 마을의 공공질서를 위한 건넌목 지키기, 환경미화, 어린이교실, 합창단, 공동작업장, 집보기, 아이보기 등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21>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봉사대 조직표다. 이 표는 단순하게 돕는 도우미와, 직접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음이와 멤버가 되어 활동하는 돌봄이로 구분하였다.

<표 21> 사회봉사대 조직표

분류	종목	내용
도우미	도우미	집 돌보기, 아기돌보기, 관공서 업무대행, 잔심부름
	지킴이	조립품작업, 경비원, 문서전달, 제품포장, 검침검표원
	가꿈이	정원 가꾸어 주기, 텃밭 가꾸기
모음이	강습소	한문, 서예, 일어, 시조, 예절, 공예
	연구소	토속음식, 특산물, 민속놀이
	상담소	결혼, 주택, 인생
	합창단	찬양, 가곡, 가요, 민요
돌봄이	향토문화탐원대	지역향토 문화탐사, 연구, 보존, 홍보
	환경파수대	지역의 환경미화, 꽃가꾸기
	교통안전원	건넌목 안전요원, 교통질서 캠페인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 예절지도, 야가순찰

268) 한국교회 노인학교 종합자료집 (2002).

강릉노암교회 노인들에게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중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역 내 직장에서 요청할 경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문서전달이라 하였고, 지역 내 거리질서를 위한 봉사로는 환경미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강릉시 4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실제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발전적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을 통한 프로그램, 생활불편 해소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은 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 마음만 있다면 해 볼만 한 프로그램들로서 나름대로 노인복지 관한 실천적 제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 장인 '강릉시 4개 교회 노인복지 사역의 발전적 전략'을 요약해보면, 교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발전적 전략 단계로 먼저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식변화를 위해 목회자가 먼저 분명한 노인 목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런 후에 교인들에게 성서에 입각한 교육과 설교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바른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논지였고, 다음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을 소개했는데, 먼저 어떤 일이든 기획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하려면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당회나 공동의회에 내놓고 허락을 받아 거기에 맞는 장소나 재정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와 훈련을 하면서, 지역 노인들이 진정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후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4개 교회와 함께 어떤 교회든 노인복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발전적 전략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는데, 가장 시급한 건강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 프로그램, 생활불편 해소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들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제안이 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우리 사회도 고령화시대가 오고 있건만 개인이나 가정, 사회적으로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그 해법을 교회에서 찾자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배경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생활인데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이웃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에 대한 이론적 기초 토대위에서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만 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아보았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한 단면도를 보듯이 역시나 이미 예측하고 있듯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드러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먼저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봄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자연스럽게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이미 개인적으로 감당키 어려워 사회제도권 안에서 해결해야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에, 민간차원의 노인복지 사업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목된 곳이 교회였는데, 교회는 외적인 조건과 함께 성서적인 내용이라는 내적 조건이 노인복지와 잘 일치하기 때문이다. 성서에는 말하는 노인의 참된 모습은 축복과 경건의 대상이요, 계명을 지킨 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인식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노인들의 지혜를 통해 가정과 사회를 세워 나갈 지도자이기에 그들을 섬기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며, 그 역할을 지역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해야 한다면, 먼저 강릉시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노인복지에 관한 일에 대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노인복지 관계성을 정립하면 앞으로의 노인복지 사역에 대한 전략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먼저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노인복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노인복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릉시에서 모범적으로 노인복지 일을 실천하고 있는 4개 교회를 살펴보았다. 먼저 강릉노암교회는 주간보호와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소규모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요양의 단계까지 섬기는 사역과 무료급식을 통한 돌봄의 사역이 하고 있었고,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는 홀로 생활할 수 없는 가난한 노인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무료양로원인 '평안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급식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노인을 만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대학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는 강릉장로교회는 교회 노년부 공부하듯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강릉소망교회 노인복지를 소개했는데, 이 교회는 독특한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무료 급식, 그리고 노후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강릉시니어클럽까지 운영할 정도로 강릉시에는 상당히 역량있는 노인복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릉시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4개 교회 노인복지 활동들을 살펴본 후에 4개 교회 노인복지들을 검토하므로 강릉시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알므로 미래 노인복지 전략을 짜는데 기초자료를 삼으려 하는 것이다. 먼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가 과연 교회 본연의 사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정체성에 비추어볼 때 그 한계를 드러냈고, 또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 교인들의 인식이 부족했고, 아울러 프로그램의 한계와 전문지도자 부재로 인한 비체계적 수행체계라는 전문성 결여까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장점인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교회시설 및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다양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한 운영의 모를 살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노인복지는 가장 본연의 사명이라는 전도와 선교적인 일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강릉시 4개 교회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발전적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먼저 목회자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후에 교우들에게 설교와 교육을 통해 성서적 원리 속에서 노인복지가 무엇인지를 주지시키며 현장교육을 병행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적으로 노인복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구체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기획을 세우고, 노인복지 미션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곧 노인복지에 대한 실천적 전략으로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했는데, 건강과 공동체 의식, 생활불편 해소, 시설 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 교회크기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영실,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서울: 도서출판 부스러기, 1998.
- _____, *노인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 사업*, 서울: 기독교서회, 2001.
- 고충엽, "인구 고령화와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01.
- 강준렬, *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기독교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백과사전* 제 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김계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82.
-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 김동배,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서울: 예안출판사, 2002.
- 김동일, *노년기생활*, 서울: 대한노인회, 1995.
- 김성철, "노인복지중심의 복지목회 전망과 과제,"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 교육대학원, 2003.
- 김수춘,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영종,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2005.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사회문제론*, 서울: 청록출판사, 2004.
- 김찬중, "노인복지 사업의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8.
- 노승민,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노치준, "희년과 한국교회의 재정 및 사회봉사," *기독교 사회복지* (1998).
-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8.
- 박상하, 박연희, 박일연, 김충식, 양희택, 전영숙, 노길희, 홍성애, 조성경, 유정욱, *사회복지개론*, 서울: 양서원, 2004.
- 박재홍, *노인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8.
-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출판사, 2000.

- 박종삼,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2002.
-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옥, 이경남, 정상양,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2.
- 박창빈, *노인문제현황과 교회의 역할*, 서울: 예장노인학교연합회, 1999.
- 배재균,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5.
- 성규탁, 김동배, 은준관, 박준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1991).
- 오성춘, *노인문제와 노인목회의 가능성*, 서울: 예장총회사업부, 1999.
- 오정수, 류진석, *지역 사회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6.
- 원석조, *사회문제론*, 서울: 양서원, 2003.
- 유수현, *한국교회와 사회사업의 실천-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도 많더라*, 서울: 기운실총서, 1999.
-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1995.
- 윤영순, "교회부설 노인대학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1.
-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9.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 2003.
- 이교갑,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 논문,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4.
- 이만식, *교회의 사회봉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2000.
- 이만식, *사회복지 엑스포 통계 분석*, 서울: 미간행출판물, 2005.
-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서울: 한울, 1992.
- 이승렬, *21C 교회노인교육의 전망과 대책*,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1.
- 이승익, "노인학교운영의 실제,"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 이원규,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1998.
-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연구,"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5.
- 임관택,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 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1.
- 임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임창욱,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03.
- 임춘식,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 정길영, “소망노인대학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6.
- 정태기, “노인을 위한 목회상담,” *기독교사상*, 1985년 1월호.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집, 1999.
- 최성재,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 서울: 예장노인학교 연합회, 2001.
-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9.
-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최종훈, *지역사회를 바꾸는 도시 목회*,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2.
- 한명숙, “한국기독교 노인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정책과학대학, 2003.
- 한창영, “한국노인복지의 행정과 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 한정란,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2001.
- 함영철,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 기독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 참여 방안,”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2 번역 서적

- Watkins, Derrel R, *기독교 사회봉사 입문 (Christian Social Ministry: An Introduction)*, 노영상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3.

Vita of
Eok Man Han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Ponam Presbyterian Church, Gangneung.
Adjunct of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Personal Data:

Birthdate:	July 1, 1958
Marital Status:	Married to Hee Sook Lee with Two Children
Home Address:	A-206, Gangneung 7th APT., Ponam, Gangneung
Phones:	033-652-6200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rch 15, 1995

Education:

B. A.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9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3
Ed M.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200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8

Personal Experience:

199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Ponam Presbyterian Church, Gangneung
------------------	--